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교육학석사 학위논문

부산지역 노인평생교육프로그램에 대한 노인들의 인식



2018년 2월

부경대학교 대학원

수해양인적자원개발학과

구 경 미

교육학석사학위논문

부산지역 노인평생교육프로그램에 대한 노인들의 인식

지도교수 강 버 들

이 논문을 교육학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8년 2월

부경대학교 대학원

수해양인적자원개발학과

구 경 미

구경미의 교육학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18년 2월 23일



위 원 장 공 학 박사 박 종 운 (인)

위 원 교 육 학 박사 원 효 현 (인)

위 원 교 육 학 박사 강 버 들 (인)

목 차

Abstract	iv
I.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문제	4
II. 이론적 배경	5
1. 노인 평생교육프로그램	5
2. 노인의 사회참여에 대한 인식	18
III. 연구방법	23
1. 연구대상	23
2. 설문조사	25
3. 분석방법	26
IV. 연구결과 및 논의	27
1. 노인의 평생교육프로그램 참여 실태	27
2. 노인의 평생교육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	37
3. 노인의 사회참여에 대한 인식	48
V. 결론 및 제언	58
참고문헌	62
부록- 설문지	65

표 목 차

<표 I-1> 연도별 예상 인구현황	2
<표 II-I> 노인교육의 범위	10
<표 II-2> 노인복지 생활시설 수	14
<표 II-3> 사회복지관의 노인복지사업내용	15
<표 II-4> 부산 노인 복지관프로그램	16
<표 II-5> 노인의 사회참여 유형 분류	20
<표 III-1> 응답자의 일반적 특징	24
<표 III-2> 설문지의 해당 문항 및 신뢰도	25
<표 IV-1> 프로그램 참여 현황 및 기간과 동기 및 수강프로그램	29
<표 IV-2> 평생교육프로그램 희망수강과목	31
<표 IV-3> 평생교육 운영기관에 바라는 점	32
<표 IV-4> 희망하는 사회참여활동분야	34
<표 IV-5> 사회참여 활동을 위한 기회증진의 필요 요소	35
<표 IV-6> 평생교육 대상자의 사회참여활동	36
<표 IV-7> 평생교육프로그램 만족도	38
<표 IV-8> 평생교육프로그램을 통한 사회참여활동 영향	39
<표 IV-9> 평생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성별, 나이, 기간, 학력별 만족도	40
<표 IV-10> 만족이유에 따른 성별, 나이, 기간, 학력별 비율	42
<표 IV-11> 평생교육프로그램을 통한 사회참여활동 만족도	45
<표 IV-12> 프로그램과 사회참여활동에 따른 만족도	46
<표 IV-13> 사회참여활동과 성별, 나이, 기간, 학력	47
<표 IV-14> 성별과 사회참여	50

<표 IV-15> 학력에 대한 평균과 표준편차	50
<표 IV-16> 학력과 사회참여	51
<표 IV-17> 프로그램 내용에 대한 평균과 표준편차	52
<표 IV-18> 프로그램 내용과 사회참여	53
<표 IV-19> 수강횟수와 사회참여 평균차이	54
<표 IV-20> 수강횟수와 사회참여	55
<표 IV-21> 수강기간과 사회참여 평균차이	57
<표 IV-22> 수강기간과 사회참여	57



Old People's Perception on Senior Lifelong Education Program in Busan

kyung- Mi, Gu

*Fisheries & Marine Human Resource Development
Graduate School
Pukyung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The aging population growth, in the modern society that is blessed with the civilization of economic growth and advanced medical technology, has stand out to be a new problem in the society. Depending on how we handle the aged people, we can become a nation where we can utilize the future human resource of the aged population efficiently, or else it can cause an aged society without competition.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understand the actual condition of the lifelong education of the aged population that is being implemented in Busan and to find out about the satisfaction and the perception of the old people on senior lifelong education. Hence, the first step of the research plan, I would consider the advance research regarding the necessity of lifelong education, and then understand the actual attendance, of the senior lifelong education, as a demographical factor.

Second, I would understand the satisfaction of the students (old people) who are participating the program and provide them basic data for the program development. Third, is to find out the perception of the aged people

about their social participation through the lifelong education. Through these, I want to provide basic data for the utilization of the human resource for the elders, which can recreate one's old age worthy and valuable by exchanging words with many people nearby; and I want to pursue the development for the lifelong education program for the elders.

In order to understand the perception of the old people attending the society through the lifelong education program, the survey research has been conducted to the old people aged from 60 years old or above who are currently attending the lifelong education program in Busan city.

The data that has been collected is analyzed by statistic SPSS WIN 2.2 ver. Afterwards, through the result of the survey, technical statistics has been produced such as percentage and frequency. In order to find out the t-verification, one-way analysis of variance, the close relation with the old people's perception and satisfaction, methods such as human relation was analyzed.

The result of the research of the old people's perception that has joined the lifelong education program in Busan region is as it follows; First, after understanding the result of the elders that have actually joined the program, which were mostly males, there were many elders that only graduated high school. Many of them signed up for two years program. After examining their motives of studying, mostly answered for the sake of their development and also interest in health education were many. What these elders want from the agency were educational activities from different subjects; also the opportunity that is needed were financially supported mostly by the lifelong education.

Second, after examining the satisfaction of the elders who are joining the program, most of them were satisfied. Learning new materials was one of

the reasons. There was nonsatisfaction mostly due to lack of diversities of programs. The programs that they were mostly satisfied were art, music, and physical education. Statistically, males were more satisfied than females in both, and out of the age, there were most satisfactions in 60's who were taking classes under two or three years. Also, elders who only graduated high school showed most satisfactions.

Third, the substantial factors of the elders joining the lifelong education program were frequent participation, satisfaction, and positive attitude. Meanwhile, elders joining the program regarding the relation of genders, females had more frequent participation, positive attitude, and high satisfaction, hence, these had higher rate of participation. The view of social participation according to academic career, people who were illiterate were high, and the ones who had a positive attitude or highest satisfaction were people who only graduated elementary school. People who graduated community college showed least satisfaction. Regarding the content of the program, field of art showed positive attitude and the highest satisfaction. The more elders took classes, there view towards social participation and their rate of joining the program frequently were high, and their attitudes were positive.

After seeing such research result, for the sake of the perception regarding the life long education of aged population and the satisfaction of the program in the trend of higher education values, it is a critical moment where it needs a professional system where it can enhance quality levels and educational subjects; as it needs active support and participation from government policies. Therefore, different kinds of appropriate support that suits health, academic level, and the age of the elders, can bring results that maximize the opportunity for them to join the lifelong education.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우리나라는 저출산문제와 의료과학의 발전과 급속한 경제 성장으로 국민의 평균 연령이 높아지는 초 고령화 사회를 앞두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 및 여성부산하 관계부처에서 출산에 대한 홍보 및 다양한 출산 장려 정책을 통해 다각적 연구와 혜택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양육비와 교육비 및 결혼 연령이 높아지면서 불임 문제와 젊은 부부들의 자녀출산과 양육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가 크고 또한 저 출산과 높은 이혼율 문제 등으로 출산율이 적어진 반면에 노인인구는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UN의 기준에 의하면 고령화사회(ageing society)란 65세 이상 인구가 총 인구를 차지하는 비율이 7% 이상, 고령사회(aged society)는 65세 이상 인구가 총 인구를 차지하는 비율이 14% 이상, 초고령사회(super-aged society)는 65세 이상 인구가 총 인구를 차지하는 비율이 20% 이상을 말한다(위숙영, 2016). 그런데 <표 I-1>에서와 같이 2020년이면 노인인구 비중이 808만명(11%)으로 고령사회(agedsociety) 진입이 예상되며, 2030년에는 1,269만명(15.7%)으로 초 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통계청, 2013). 우리나라가 2000년대 고령화사회로 진입한 이후 불과 35년여 만에 초 고령 사회로 진입하게 될 것이다.

<표 1-1> 연도별 예상인구현황

(단위: 명/ %)

항목 연도	2000년	2010년	2020년	2030년	2040년	2050년
총 인구	47,008,111	47,008,111	51,435,495	52,160,065	51,091,352	48,121,275
고령 인구	3,394,896	3,394,896	8,084,096	12,691,446	16,501,324	17,991,052
고령 비율	7.2%	7.2%	11%	15.7%	24.3%	37.4%

통계청자료 (2013)

통계청(2016)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평균수명이 남자 77.3세, 여자 84.0세로 기본적으로 80세를 넘어섰고, 40년 전보다 수명이 약 18년 늘어났다. 또한 2016년에는 생산가능 인구 5.4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하였으나, 2020년에는 4.5명, 2040년에는 1.7명, 2060년에는 1.2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해야 하는 상황이 오게 된다고 한다.

첨단의료과학과 경제 성장의 문명을 누리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고령화 문제는 새로운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노인 문제를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서 미래인적자원인 고령인구를 효율적으로 잘 활용하는 나라가 될 수도 있고, 경쟁력이 없는 고령사회를 야기할 수도 있다. 과거에 비해 노인들은 건강에 대한 많은 노력과 자기 관리로 건강한 체력을 갖고 있다.

학력신장으로 인해 고학력자들이 많아지고 있는 현시점에서 미래를 어떻게 준비하는가에 따라 늘어난 노년기의 삶이 새로운 인생의 출발점이 될 수도 있고, 불행한 노년기의 출발점이 될 수도 있다. 그러므로 평생교육을 통한 제 2의 인생설계가 노년기의 질적 삶의 분기점이 될 수도 있다. 따라서 노인평생교육에 대한 기대가 크고 평생교육의 질적 수준과 다양성 및 전문성이 더욱더 필요한 시기이며, 변화된 교육의 요구에 맞는 교육 시스

템의 개발과 발전이 요구된다.

연구자는 문화예술관련 수업으로 노인평생교육을 단체와 개인을 대상으로 진행하면서 평생교육을 통해 노인들의 사회성과 자존감이 향상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또한 자신의 장점과 그동안 미뤘었던 배움의 욕구를 해소하여 자기실현의 기회를 갖는 것을 보면서 삶의 의미와 가치를 높이면서 더욱 전문화되고 다양한 평생교육의 필요성이 절실히 느껴졌다. 첨단의료기술의 발전과 빠른 신기술의 영향으로 미래는 더욱 더 노인인구의 생명연장 가능성이 기대된다. 과거의 경제활동 수준에 비하여 훨씬 안정된 경제환경으로 인해 교육수준이나 문화 예술 활동에 대한 욕구가 매우 높아지고 있다. 그리고 높아지는 교육 및 문화 예술 활동에 대한 요구에 알맞은 평생교육 현장의 보안이 필요하다. 따라서 빠른 고령화 속도를 보이고 있는 우리나라의 실정을 고려한 고령화 정책 및 노인평생교육의 관점에서 문화 및 다양한 예술 프로그램의 준비와 정책적 개발이 매우 시급한 시점이다.

사람은 누구나 행복하고 즐겁게 살아가면서 가치 있는 삶을 누리길 원한다. 그러므로 신체적·정신적 노화로 인해 사회참여의 기회가 상실되어 소외된 삶을 살아가는 노인들이 없도록 정부와 관계부처에서는 노인들에 대한 다각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노인의 행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인평생교육프로그램을 통한 노인들의 교육 참여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노인들의 평생교육에 대한 선행 연구를 조사한 결과, 기존의 연구에서는 평생교육의 구성요소들을 독립변수로 하여 정신건강이나 행복감 등에 관련된 영향을 분석하는 연구와 사회관계망의 유형에 따른 삶의 질에 따른 다양한 연구 등이 있으나 평생교육에 대한 노인들의 인식에 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급속한 고령화 속도를 보이고 있는 우리나라

에서 현재 실시되고 있는 노인평생교육프로그램의 실태를 파악하고 노인수강생들의 인식을 파악하여 더욱더 많은 노인들이 노인평생교육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일 수 있기 위한 방향을 연구하려고 한다. 그러므로 연구목적을 위한 연구계획은 첫째, 평생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선행연구를 통하여 고찰해 보고, 현 노인평생교육프로그램의 참여 실태를 인구학적 요인으로 파악한다. 둘째, 현재 운영되는 프로그램에 대한 수강생들의 만족도를 파악하여 더 나은 프로그램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한다. 셋째, 노인평생교육프로그램을 통한 노인들의 사회참여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노인평생교육의 질적 발전을 모색해 보고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과 교류하면서 가치 있고 보람되게 노후의 삶을 재창조 할 수 있는 노인인적 자원 활용을 위한 기초자료로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문제

본 연구는 부산에 있는 노인들의 평생교육프로그램 참여 실태를 파악하고, 만족도를 알아보며, 평생교육프로그램을 통한 노인들의 사회참여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설정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노인의 평생교육프로그램 참여 실태는 어떠한가?

둘째, 평생교육프로그램에 대한 노인들의 만족도는 어떠한가?

셋째, 평생교육프로그램을 통한 노인들의 사회참여에 대한 인식은 어떠한가?

Ⅱ. 이론적 배경

1. 노인 평생교육프로그램

가. 평생교육 개념

평생교육의 개념 정의를 최초로 주창했던 사람은 랭그랑이다. 1965년 파리유네스코 국제회의에서 랭그랑(1970)의 ‘평생교육이론’이라는 논문을 통해 최초로 언급되었다. 1972년 도쿄 제 3차 세계성인 교육회의에서는 ‘평생교육’을 공식적인 국제 용어로 채택하였으며, 1973년에는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세미나에서 평생교육에 대한 개념과 원리가 소개되었고, 1980년에는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행해야 한다고 명문화했다(김영순, 2016). 우리나라의 평생교육법에서는 ‘평생교육이란 학교교육을 제외한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의미한다(평생교육법 제 2조 ①항)’ 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 정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 활동이라고 규정함으로써 법규상으로 교육의 기회를 학령기 아동부터 노인까지 평생교육의 대상임을 분명히 정의하고 있다. 한효섭(2009)은 평생교육을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시간적, 공간적으로 이루어지고 또한 이루어질 수 있는 모든 행태의 교육활동이라고 한다. 또한 사람을 위한, 사람에 관한, 사람에 의한, 사람의 교육이라고 정의하였다. 그러므로 평생교육은 의무적인 학교교육과 다소 다른 요인에 의해서 발전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평균 수명의 연장과 발전하는 첨단 과학기술로 인해 가사 노동이 단축되었고, 출산율의 저조로 자녀양육에 대한 시간보다 여가시간의 증가와 급변하는 세계경제의 변화로 인해 평생직장의

개념이 아닌 새로운 일자리 확충을 위한 도구로 평생학습을 통한 새로운 기술의 습득과 정보를 요구하게 되었다.

평생교육에 대해 김종서는 “인간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이념추구를 위하여 태교에서부터 시작하여 유아교육, 아동교육, 청년교육, 성인전기교육, 성인후기교육, 노인교육을 수직적으로 통합한 교육과정과 가정교육, 사회교육, 학교교육을 수평적으로 통합한 교육을 총칭하여 말하며 그것은 개인의 잠재능력의 최대한의 신장과 사회 발전에 참여하는 능력의 개발을 목적으로 한다.”고 정의하였다(김종서 외, 2004).

따라서 평생교육은 개인이 교육을 통해 일생동안 배워 나가며 지속적인 자기발전을 위해 태어나서 무덤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형태의 교육을 지칭하므로 직업교육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 발달 상황에 맞는 교육을 포괄한다고 할 수 있다.

나. 노인의 평생교육 필요성

평생교육의 필요성은 사회의 구성원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사회의 구조와 기능적 특성과 아울러 그 사회의 문화적 변천과 밀접한 관계를 보이고 있다. 정보화 사회에서는 지식과 정보의 양이 폭발적으로 증가되는 한편 그 생성과 소멸주기가 빨라지기 때문에 국민들은 더 나은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평생을 걸쳐 끊임없이 학습해 나가야 한다. 따라서 평생교육, 평생학습 수요가 지금보다 더욱 증대되고 일반화되어 사회 환경 및 교육환경이 급속히 변화함에 따라 평생을 통한 지속적인 교육을 필요로 하고 있다.

평생교육의 필요성에 대하여 김영순(2016)은 이렇게 논의하고 있다. 첫째, 급격한 사회변동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고, 사회발전을 촉진시킬

수 있는 사회의 교육역량을 증대시키기 위해서이다. 둘째, 개인이 날로 팽창하는 지식을 시시각각으로 습득하고 새로이 출현하는 사회가치를 창조적, 비판적으로 수용하기 위해서이다. 셋째, 점점 더 전문화되고 특수화되며 조직화되어 가는 현대 사회체계에서 개인이 지능적으로 적응하기 위해서이다. 넷째, 개인이 그의 잠재적 개발가능성을 한평생 끊임없이 최대로 개발시키기 위해서이다. 다섯째, 개인이 각 발달단계에서 수행해야 할 새로운 역할을 습득하고 새롭게 일어나는 개인적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이다. 여섯째, 개인이 받은 학교의 형식교육을 보충 보강하거나 형식교육의 기회를 놓친 사람에게는 자기발전을 위한 기초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이다.

따라서 노인 평생교육은 급변하는 현대사회에서 적절히 적응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켜 노후 생활을 보다 윤택하고 보람되게 보낼 수 있도록 돕는 데 있다.

우리는 폭발적 지식의 증가와 빠른 사회적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어떻게 경쟁하면서 사느냐에 대한 의구심으로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과거 19세기와 20세기를 살았던 사람들에 비해 매우 빠른 속도의 지식의 홍수 속에서 하루에도 수천, 수만의 정보가 생성되다가 물거품처럼 사라지는 현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앞으로 더욱더 변화무상한 세상에서 어떻게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고 적응하여야 하는가? 에 대한 의구심과 미래를 어떻게 준비해야하는가? 에 대한 과제 속에서 급변하는 산업과학기술의 발달에 맞는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가 당면 과제가 되었다.

우리는 100세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60세 정년퇴직 후 일을 하지 않고 여생을 편안하게 쉬다가 삶을 마감하기에는 너무도 건강한 신체적 조건과 긴 노후를 살아가고 있다. 평균수명 연장에 따른 효율적인 노후생활설계와

여가시간의 활용을 준비해야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인간의 평균수명 연장을 통해 긴 여가시간을 유효적절하게 보내는 방법을 배우기 위해서도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평생교육은 노인의 가정생활, 신체·정서활동, 여가활동 등 지적인 변화와 생활의 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하고 발전시키는 데 많은 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급속한 변화의 소용돌이에 있는 현대사회에서 소외되지 않고 정보를 공유하며 함께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제시하고, 노후의 여가를 유용하게 즐길 수 있으며, 다양한 문화예술의 혜택을 누리 삶에 대한 존재가치를 높여주고 생활만족도를 높여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평생교육은 매우 필요하다고 말할 수 있다.

준비되어지지 않는 노후는 축복이 아닌 불행이 될 수도 있다. 현재의 노인들은 한국사회의 과도기적인 노인세대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자식들을 기대하여 자녀들에게 모든 것을 상속하고 노후를 막연하게 보장 받고자 하는 세대에서 이젠 부모들을 부양하며 자식들을 돌봐주고 또한 자신들을 위해 스스로 노후를 준비해야하는 요즘세대의 노인들의 삶에서 많은 문제점들이 발견되어진다. 이런 문제는 노인들 자신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바로 사회와 국가적인 문제인 것이다. 국가는 노인들의 개인의 삶에 대해 책임질 의무가 있고, 노후가 보장된 만족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줄 책임이 있다. 이런 노인문제의 해결방안에 대해서 평생교육을 통해 미래를 준비하고 예측하여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준비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대안과 대책을 마련 할 수 있을 것이다.

다. 노인의 평생교육 특성

노인인구의 증가는 단순히 노인 인구가 많다고 하는 양적자원의 문제 뿐 만 아니라 노인을 누가 어떻게 부양해야 하는가의 문제와 은퇴 후 사망 시까지의 30-40년의 긴 시간을 어떻게 살아가야하는가에 대한 질적인 문제까지 고뇌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오늘날의 노인들은 산업사회와 정보 사회를 다 경험하였으나 현대화이론에서 설명하고 있듯이 현대의 핵심부에서 주변부로 밀려나 있는 상태이다. 주변부 인간인 노인이 느끼는 고통을 일반적으로 4고(苦)라고 하는데 이는 빈곤, 건강악화, 소외 및 역할 상실이다. 노인의 삶의 질이나 well-being 등은 어떻게 극복하는가에 따라 달려 있는데 최근에는 자녀나 가족에게 기대지 않고 독립적인 생활이나 노후 준비를 통해 자신의 삶을 만족하게 살기 위해 노력하는 노인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민경진, 2006). 많은 노인들이 노후를 즐겁고 만족하게 살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그 중에서 평생교육을 통한 만족감과 삶의 보람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Jarvis(1990; 심의보 재인용)는 노인 교육의 범위를 ‘노인을 위한 교육, 노인과 노화에 관한 교육, 그리고 노인과 관련된 직업을 가진 이들을 위한 노인에 의한 교육으로 교육의 세 분야를 포함하는 교육적 노력의 연구와 실천’으로 규정하여 제시하고 있다. 이런 노인 교육의 범위를 교육적 내용을 포괄하여 학습자와 교수자를 구분하여 세부적으로 제시하여 노인평생교육의 범위를 <표 II-I>을 통해 제시하고 있다.

<표 II - I> 노인평생교육의 범위

구분	노인을 위한 교육	노인에 관한 교육	노인에 의한 교육
학습 자	• 노인	• 모든 연령의 학습자 • 노인 관련 직업종사자	• 모든 연령의 학습자
교수 자	• 모든 연령이 가능 (노인포함)	• 모든 연령이 가능 (노인 포함)	• 노인
목적	• 노인 자신의 삶과 사회에 대한 힘 (empowermen)강화	• 일반적인 노인의 이해 • 퇴직 준비 • 노인 전문성 강화	• 세대 간 이해확대 • 사회참여증대 • 사회봉사 강화
주요 내용	• 노인의 특성 • 노년기에 필요한 건강, 여가, 직업 기술 등	• 노인과 노화의 특성 • 고객으로서 노인특성 등 • 노년기 준비 • 노인 직업준비교육	• 노인의 경험과 지혜 가 기여할 수 있는 역 사적 사실 • 전통 시과 기능 • 각종 봉사활동 등

심의보 외(2012), 노인복지론

첫째, 노인평생교육은 노인을 위한 교육이다. 노인을 위한 교육은 노인을 위하여 어떤 교육을 통해 도움을 줄 것인지에 대한 교육으로서 노인의 특성 및 노년기에 필요한 전반적인 교육을 통해서 특히 노인들의 특징을 이해하고 노인들의 건강과 여가교육 및 노인들에게 필요한 직업교육 등 노인들에게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교육을 말한다.

둘째, 노인평생교육은 노인에 관한 교육이다. 노인에 관한 교육에서의 학습자는 아동으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연령으로서 누구나 노인이 될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여 노인을 위한 직업에 종사하기를 원하거나 현재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이나 퇴직을 준비하는 모든 사람들을 통틀어서 지칭하며, 노년기를 준비하는 교육이라고 지칭해도 될 것이다. 노인이 되어서 사회에서 함께 적응하고 그 역할에 알맞은 일을 할 수 있는 준비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직업 교육을 포함한 전반적인 교육을 포함하여 다양한 지식과

기술을 준비 할 수 있는 교육을 포괄하여 준비하는 교육을 다룬다.

셋째, 노인평생교육은 노인들의 지혜와 경륜을 통해 갖고 있는 삶의 경험들을 적절히 잘 활용할 수 있는 교육으로서 노인을 위한 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 오랜 삶의 지혜와 경험을 바탕으로 삶의 지혜가 축적되며 갈수록 높은 교육과 경제적 지식과 지혜가 쌓여 있는 고령자들이 증가하는 현 시점에서 건강하고 지혜로운 노인 인적자원을 활용하는 것이 바로 노인에 의한 교육이다. 앞으로는 저출산 현상으로 인해 청년 인구의 감소가 예상되고 첨단의료시설 및 경제성장으로 인한 부의 축적으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건강한 고령인구의 증가가 예상된다. 그들의 요구도 과거에 비해 경제활동에 참여하여 초고령 사회를 대비한 경제적 능력을 준비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지혜롭고 건강한 고령 인구의 경제활동에 대한 참여 비율이 높을 수 있다. 따라서 그들의 인적 자원에 알맞은 적절한 경제교육과 현 시대에 알맞은 교육을 추가 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그들의 인적자원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며 그에 맞는 정책적 노력과 여건이 마련되어 체계적인 교육활동과 향후 생산적인직업과 연계하는 차별화된 시스템이 필요하다. 노인평생교육은 생활의 재창조라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 따라서 노인들은 유교적인 고무된 가치관인 젊은 사람들이 나이든 사람들을 당연히 대접하고 노후를 책임져줘야 한다는 관습과 의타적인 삶에서 벗어나야겠다. 스스로 미래의 삶을 준비하고 생동감 있고 활기차게 생활하면서 봉사활동도 하면서 여유로운 삶을 준비할 수 있는 생활의 재창조적인 삶을 평생교육을 통해 마련할 수 있다. 따라서 노인이해교육과 참여교육을 통해 정서적 만족과 생활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더 나은 미래를 준비 할 수 있는 다양하고 전문적인 교육의 필요성이 더욱더 절실하며, 나아가 고령화 시대를 사는 현 시대의 노인들의 당면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라. 노인평생교육프로그램 실태

우리나라 노인 평생교육에서 최초로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 시작된 것은 1965년 4월 부산 범일동에서 ‘한얼경로교실’이 설립된 때부터이며 1972년 10월 서울평생교육원에서 개설한 노후생활 강좌로부터 시작되었다.

1981년 노인복지법의 제정으로 노인복지관, 노인교실, 경로당은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정부로부터 관리 및 지원을 받게 되었다. 1989년 보건복지법 상에서 학군 단위 노인교실, 노인대학, 노인학교 등이 모두 ‘노인교실’이라는 명칭으로 통일되었으며 ‘노인교실’은 그 이후로도 법제상의 명칭일 뿐 현실에서는 거의 통용되지 못한 채 지금에 이르고 있다(송선희 외, 2011).

노인복지법 제36조 3항(1997년 7월 개정)에 ‘노인교실은 노인에 대하여 사회활동 참여촉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건전한 취미생활, 노인건강 유지, 소득 보장, 기타 일상생활과 관련한 학습프로그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여가시설로 60세 이상의 자를 대상으로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노인교실은 노인들이 사회활동 참여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건전한 취미생활·노인건강유지·소득보장 기타 일상생활과 관련한 다양한 학습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하는 시설이다. 노인의 교육을 위한 학교에서의 평생교육은 교육과학기술부가 1978년 전국 각 급 학교에 학군단위로 노인 학교를 설립할 것을 목적으로 ‘노인교실설치요강’을 마련하면서 시작되었다. 노인교실은 지역노인들을 위하여 초등학교 학구단위로 설정되어 보건가족복지부의 지원을 받는 노인교육프로그램이다(김영란, 2006). 현재 우리나라의 노인교육 기관은 노인교육전달기관(노인교실, 노인학교, 노인대학)과 노인교육전담기관은 아니지만 노인교육을 실시하는 2차적 노인교육 기관(노인복지관, 사회복지관)으로 구분하여 볼 수 있다(김경옥, 2005).

대한노인회는 1969년 전국 노인정 회장들이 중심이 되어 설립하였는데 현재 우리나라의 노인활동의 중심체 역할을 하고 있다. 중앙회, 연합회, 지회, 분회의 4단계 조직체계를 가지고 있는 전국적인 조직이다. 노인복지법상 여가시설인 노인교실과는 별개의 개념으로 대한노인회가 산하에 운영하는 노인대학, 노인학교, 노인교실과 교회나 지역사회의 민간단체들이 운영하는 노인학교들이 우리나라의 실제적 노인교육전담기관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 대부분은 시·군·구청에 노인교실로 등록하지 않고 활동하고 있어서 실제로 정확한 집계가 어려운 실정이다(김영순, 2016).

1) 노인대학

노인대학은 노인교실의 운영자 연합회 및 지회의 임직원, 그리고 일선 노인지도자로 양성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들을 교육시키는 기관으로서, 그 목적은 노인학교의 운영자 및 산하 지회의 재교육을 통하여 이들의 맡은바 직무의 효율을 배가 시키는데 있다(김영순, 2016). 노인대학 설립 목적은 노인들의 사회활동과 참여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건전한 취미생활, 노인건강 유지, 소득보장(노인복지법 제36조 제1항 제3호), 기타 일반생활과 관련된 학습프로그램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다. 동년배, 노인들과 친교를 유지하며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변화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적용할 줄 알며, 생산적인 활동을 계속하여 사회발전에 기여하고 배우자나 자신의 죽음에 대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고양곤, 2002).

<표 II-2>는 전국 노인 여가복지시설에 대한 수로서 노인 복지관과 경로당, 노인교실의 수를 2015년도와 2016년도의 개수를 수집한 도표이다. 위 자료로 2015년에 비해 2016년도의 노인여가복지시설이 점차 늘어나는 것을 볼 수 있다. 갈수록 출산을 감소와 노인 인구증가로 인한 노인 복지 생활 시설 수는 증가할 예상이며 건강한 노인과 연약한 노인을 위한 노인 복지

시설의 확충과 특히 건강한 노인들을 위한 다양한 교육시스템을 구비한 생활시설의 확충이 더욱더 요구되고 있다.

<표 II-2> 노인복지 생활시설 수 (개수)

노인여가복지시설	2016 년	2015 년
노인 복지관	350	347
경로당	65,044	64,568
노인교실	1,393	1,377
합계	66,787	66,292

보건복지부, 노인복지시설현황(2016)

2) 노인학교

노인학교의 교육목적은 노인들이 지역사회에서 존경받는 노인으로서 품위향상과 그들에게 현대사회에 적응하는 능력을 배양하고 노인 각자가 지니는 잠재능력을 재 계발하고 노인 건강관리에 관한 지식을 부여함으로써 여생을 보람 있게 보낼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노인학교의 교육내용은 교양과목 30%, 국내외 정세 30%, 기능습득 20%, 건강관리 및 기타 20%로 되어 있다. 그리고 교육기간은 6개월 이상으로 하고 주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게 되어 있다(김영순, 2016).

3) 노인교실

대한노인회 산하 학구 단위의 노인교실은 주로 지역의 초등학교 내에 설치 운영되고 있으나, 몇몇 개를 제외하고는 각 사회단체나 종교단체에서 운영하는 노인교육 강좌에 밀려 유명무실해져 가고 있다.

노인교실은 정형화된 교육과정이 없고 학교마다 특성에 맞게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다. 노인교실의 교과영역별 교육내용을 보면 교양 및 상식, 취미학습, 건강관리와 안전 등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지역별 차이는 시 지역에서는 산업시설, 봉사활동 등이, 군 지역에서는 영농교육, 양봉 등의 교과목 등이 있다(김영순, 2016). 대부분 노인교실의 교육 기간은 6개월 이상으로 하고 주1회 이상으로 교육활동을 하고 있다. 노인교실의 교육 과정은 담당운영자와 기관의 실정에 맞게 설정되어 운영하고 있으며 교육 내용이나 일정에 대한 규정은 설정되어 있지 않으며 주로 흥미위주와 관계향상 및 센터에서 할 수 있는 보편적인 프로그램위주로 운영되고 있다.

4) 사회복지관

우리나라의 사회복지관은 크게 아동복지사업, 청소년복지사업, 가정 복지사업, 노인복지사업, 장애인복지사업, 지역복지사업 등으로 진행하고 있다. 정부에서 규정한 목적사업과 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노인복지사업이 있으며 복지관의 전반적인 사업내용은 다음 <표 II-3>과 같다.

<표 II-3> 사회복지관의 노인복지사업내용

국가에서 규정하는 사업	실시되고 있는 사업
노인문제상담 건강 상담	건강 상담, 자녀와의 관계, 노후생활문제 등 상담
불우노인 결연	후원자연결, 1인1통장 갖기
노인사회교육	여가지도일일캠프,지역봉사클럽조직,교양강좌
노인부업 실 운영	가내수공업 연결 공동작업장
노인가정봉사원 파견	가정자원봉사자 훈련 및 파견
노인학교 운영	노인대학, 노인정 운영
노인목욕 서비스	목욕탕 운영, 이동목욕차량 운영 등

김영순(2016)

사회복지관의 노인복지사업 중 노인 부업실 운영사업은 해당 업체 간의 연계 사업으로 이루어지는 곳도 있다. 그러나 사업의 확장이 매우 필요하며 몇몇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나 해당 전문운영 인력의 부족으로 사업이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상이다. 목욕탕 운영이나 이동 목욕차량 사업 등은 세부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기에는 복지관의 시설 및 제반 여건이 열악하므로 주로 노인복지관에서 운영을 하는 경우가 많다. 전국 사회복지관은 459개로 보건복지부(2016)에서 집계하고 있고 350개의 노인복지관(보건복지부, 노인복지시설현황 2016)이 있으나 662만 400명(보건복지부, 2016)의 65세 이상 노인인구수에 비해 이러한 노인복지정책을 수렴하기 위한 사회복지관의 인원과 여건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표 II-4>는 부산 노인 종합 복지관에 있는 평생교육시스템으로서 평생 교육지원, 취미여가지원, 늘 배움 교실, 문화예술프로그램, 성인 문해 교육 지원·건강증진·교양·언어·취미여가·정보화 등 50여개의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수강하는 노인들에게 건강하고 건전한 여가활동과 활기찬 노후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표 II-4> 부산노인 종합복지관프로그램

영역	프로그램
건강증진	건강수지(초급/중급), 건강 체조, 단전호흡, 탁구(초급/중급), 활력요가
교양	논어, 사군자, 서예(A/B), 수화, 채근담, 풍수지리
언어	국어(첫걸음/초급), 알파벳 첫걸음, 영문법(초급/중급), 일본어(초급/중급), 중국어(첫걸음/초급)
취미여가	기타(초급/중급), 노래교실, 댄스스포츠, 라인댄스, 민요, 영화감상, 오카리나(초급/중급), 우리 춤 하모니카(초급/중급)
정보화	스마트폰(A/B), 컴퓨터(첫걸음/문서작성/인터넷활용/동영상제작)
특화지원	락·락·청춘(난타/장구), 팔·팔·청춘(세라밴드/ 스포츠테라피/ 실버타이치)

부산노인 종합복지관프로그램 제작성(2017)

5) 종교기관

기독교, 천주교, 불교 등의 각 종교단체들에서 노인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위해 노인대학이나 시니어 교실 등 각종 명칭으로 노인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가 많고 대부분 종교기관 자체 내에서 비영리로 운영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종교기관에서 운영하는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에는 힘들 수 있다.

6) 정부 및 민간단체

노인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단체나 기관은 여성단체나 여성회관, 박물관, 도서관 등의 사회교육기관 뿐만 아니라 종교단체 및 문화예술 단체 등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부산의 부산문화재단에 있는 생활문화 본부의 문화 복지 팀 에서 운영하는 '맞춤형 실버문화 복지지원 사업은 노인대상으로 클래식, 국악, 대중음악, 공예, 미술, 음악, 문학, 무용 등 다양한 문화예술 장르를 전문가와 연계한 수업을 통해 지역에 있는 노인들이나 특히 소외된 독거노인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문화예술 전문가들이 노인 대상자들을 위해서 일대일 개인수업으로 진행하고 있다.

7) 대학의 평생교육원

대학부설 평생(사회)교육원은 지역주민의 수요를 반영하여 실생활과 관련된 지식과 직업기술 강좌를 운영하고 대학의 인적·물적 자원의 활용이 가능하게 하고 있다. 또한 구청과 중, 고등학교의 자유학기제와 연계한 다양한 교육과 직업 보수교육 등 다양한 교육과 연계하여 강좌를 운영하여 일반 시민들의 삶의 질을 한 차원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일반 성인 및, 학생, 뿐만 아니라 노인층도 자유롭게 수강할 수 있다. 또한 많은 강좌 중에 노인을 주 대상으로 하여 노인층에게 적합한 강좌를 시도 군의 사업과 연

계해서 별도로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이런 특화된 프로그램은 노인대상자를 위한 심리안정과 여가를 위한 교육으로 질적 만족이 크며 대학평생교육은 일반 성인들과 같이 수업을 자연스럽게 수강할 수 있어서 노인들의 사회성 향상 및 정신건강에도 유효하며 고학력 노인들의 지적 만족 및 새로운 직업 및 자기개발 프로그램으로 유용하다.

2. 노인의 사회참여에 대한 인식

가. 사회참여에 대한 이해

노인이 가지고 있는 욕구에는 기본적인 의식주를 해결하는 생활의 욕구와 더 나은 경제적 삶을 누리기 위한 경제적인 소득욕구, 취미·여가활동을 통해 삶의 여유를 가지기 위한 여가욕구, 교육적 활동을 통해 지식을 쌓을 수 있고 급속하게 변화되는 현대 사회의 변화에 적응해 갈 수 있는 교육적 욕구, 자원봉사 등을 통해 심리적 안정과 자부심을 가지고 삶의 가치를 느낄 수 있는 심리적 욕구 등 여러 가지 욕구가 있다. 노인의 사회참여에 대한 인식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욕구를 충족시킴으로 삶의 질을 개선시키는데 도움을 주는 활동으로 볼 수 있다.

노인의 사회참여는 생활의 재창조적인 측면과 독립적이고 발전적인 노후를 준비하기 위한 과정으로서 필요하며 급속하게 변화되고 발전하는 사회구성원으로서 함께 융화할 수 있는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고 할 수 있다.

나. 노인의 사회참여 특징

노인의 사회참여에 대해서는 협의의 개념과 광의의 개념으로 구분할 수 있다. 협의의 개념에서 사회참여란 한 사회집단이 갖고 있는 욕구를 표현하고 공동이익을 옹호하며 특정의 경제적·사회적·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발휘하는 조직적 활동을 의미한다. 광의의 개념에서 사회참여는 노인의 취업활동, 지역사회조직 및 단체 활동 등을 모두 포괄하는 광범위한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이때 사회집단의 목적 달성만을 위한 것이 협의의 개념이라면 사회집단의 목적 달성뿐만 아니라 개인의 목적 달성까지 내포하고 있다는 것이 광의의 개념이며 이에 따라 차이가 있다(이소정 외, 2008). 그러므로 이채원(2015)은 노인의 사회참여에 대해서 “노인의 인구사회적 특성을 파악하여 어느 한쪽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들을 통합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들 인구사회적 요인을 고려한 정책 및 구체적인 프로그램개발이 수행될 때 보다 효율적인 노인사회참여가 가능할 것이다.” 라고 논의하였다.

노인의 사회참여를 여러 범주로 구분한 <표 II-5>의 노인의 사회참여 유형 분류개념을 참조하여 살펴보면 사회참여의 목적에 따른 개인적 욕구와 사회적 욕구에 따른 다양한 사회참여방법을 살펴볼 수 있다. 노인의 사회참여는 목적에 따라 개인적 욕구와 사회적 변화욕구로 살펴 볼 수 있다. 사회적 변화 욕구는 직업 활동이나 평생교육 참여, 사교모임, 자원봉사 활동 등으로 나눌 수 있다.

<표 II-5> 노인의 사회참여 유형 분류

구분	참여방법		
	사회적 변화 욕구	자원봉사 활동	정치단체 활동 자원봉사단체 활동
목적	개인적 욕구	직업 활동 평생교육 참여 사교모임 참여 자원봉사 활동	종교단체 활동 사교단체 활동 문화단체 활동 운동단체 활동

허준수(2010)

개인참여는 노인들이 자발적으로 다른 사람들과 함께 활동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환경적 요소로 인한 문제해결능력 및 상호작용을 통한 의사결정과 협력 및 이해 등을 바탕으로 한다. 또한 다른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사회체제에 통합되고 소통하며, 나아가 빠르게 변화하는 현대사회로부터 고립감을 해소하며, 융화 할 수 있는 활동으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사회참여 활동은 노인이 개인적으로 하는 직업이나 사회봉사와 같은 사회활동이나 집단 적인 활동을 모두 포함하는 활동이다.

레베스어(Levasseur et al.)는 노인 사회참여의 개념을 사회적 연대, 사회적 자본, 사회적 지지, 사회적 연계, 사회적 통합 및 지역사회 참여 등으로 다양하게 규정하였다. 또한 사회참여활동에 대하여 여섯 가지 특성들로 분류하였다. 첫째, 다른 사람과의 연계를 위한 준비활동, 둘째, 다른 사람과 함께 있는 활동, 셋째, 특정한 활동 없이 다른 사람들과 상호작용하는 활동, 넷째, 동일한 목표를 위해 다른 사람과 함께하는 활동, 다섯째,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 활동, 여섯째, 사회에 기여하는 활동으로 규정하고 있다. 레베스어와 그의 동료들은 노인 사회참여의 개념을 개별적이나 단독적으로 수행하는 활동이 아닌 다른 사람들과의 교류활동이라고 분류하였다(허준수, 2010).

다. 노인의 사회 참여에 대한 필요성 및 효과

사회참여는 노년기의 생활만족도를 증진시키고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며 자아존중감을 향상시켜서 삶의 행복유지, 건강유지, 지역사회로의 통합 등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사회참여를 많이 할수록 그렇지 않은 노인들에 비해서 긍정적인 자아상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준다. 또한 앞장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노인의 사회참여는 노인이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참여하는가에 따라 다르게 정의될 수 있다. 이러한 노인의 사회참여로 나타날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를 한국노인인력개발원(2009)에서 제시한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생활 만족도와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 노년기의 심리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는 사회활동에 참여하는 것은 긍정적 자아상을 유지하게 하여 생활 만족 또는 삶의 질을 향상시키게 된다.

둘째, 성공적 노화의 중요 요인이다. 사람들과의 관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바로 사회참여를 의미하는 것이다.

셋째, 건강을 유지하고 향상시켜 준다. 사회참여는 신체의 움직임과 건전한 심리사회적 지지와 관계를 형성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신체 및 정신적 건강을 유지하고 향상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다.

넷째, 노년기 발달과업 수행에 기여한다. 고령화 사회에서 노년기가 연장됨에 따라 노년기를 자기 성취의 시기 또는 제2의 성장의 시기로 보는 경향이 있다. 이는 사회참여를 중요한 내용으로 포함하고 있고 이러한 사회참여는 고령화 사회에서 연장된 노년기의 발달과업을 수행하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다섯째, 개인성장을 촉진한다. 중년기 이후의 사회참여는 셰들러(Sadler, T.W)가 주장하는 것처럼 제2의 성장의 주요 요소가 되기 때문에

개인의 성장을 촉진하는데 기여한다.

여섯째, 관계망을 유지하는데 기여한다. 사회참여는 사회적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므로 사회참여의 폭과 질은 사회적 관계망의 범위를 유지·확대하고 그 관계의 질을 향상 시키는데도 기여할 수 있다. 또한 사회참여는 인지능력의 퇴화를 지연시킬 수도 있다.

일곱째, 노인의 사회적 통합을 증진시킨다. 사회참여는 세대 간의 관계나 사회 다른 계층과의 관계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노인의 사회적 통합을 증진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다.

여덟째, 노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 개선에 기여한다. 노년기는 은퇴하여 특별히 하는 일 없이 지내는 시기로 보고 은퇴는 생산능력저하로 인한 불가피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기 쉽다. 따라서 이러한 전통적 노인의 개념과 은퇴의 개념은 노인의 능력을 부정적으로 반영시킬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노년기의 지속적인 사회참여는 노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사회적으로 개선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아홉째, 고령화 사회에 대한 주요 대응책이 된다. 사회참여는 넓게는 경제적 의미에서의 생산적 활동과 사회 심리적 의미에서의 생산적 활동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노인의 사회참여는 고령화 사회를 유지시켜 주고 발전시키는 사회적 자본이 된다고 할 수 있다(한국노인인력개발원, 2009). 사회참여활동을 통해 노인을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참여하게 함으로써 노인을 위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오히려 노인의 사회적 활동 및 경제생산 활동에 기여하여 통합적 사회구성원으로서 참여시킬 수 있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부산시 남구, 수영구, 해운대구, 북구, 기장에 있는 노인 평생교육기관의 노인교육대상자들을 중심으로 평생교육프로그램을 통한 노인들의 사회참여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기 위하여 만 60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설문 조사 연구이다. 2017년 1월 10일 ~ 2017년 1월 25일까지 15일간 30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를 토대로 수정된 설문지를 연구대상 노인들에게 배포하여 본 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조사는 자기보고식 조사이나 일대일 면접을 시행하였다. 연구대상자가 노인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설문지가 잘 보이지 않거나 글을 읽기 불편한 분들을 위해 조사요원이 설문문항을 직접 읽어주면서 내용을 이해시키고 조사대상자의 반응을 파악한 후에 설문지에 기입하도록 했으며, 직접 설문지 기입이 가능한 경우는 설문지를 배포하여 자기기입식으로 진행한 후 회수하였다.

총 200명에게 방문조사를 통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회수된 설문지 총 200부 중에서 자료처리과정에서 무응답 및 불성실한 답변 설문지 30부는 자료로서 사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제외하고 총 170부를 최종 분석의 대상으로 삼았다.

<표 III-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조사대상자의 성별은 남성 88명(51.8%), 여성 82명(48.2%)으로 남성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 나이는 60대 63명(37.1%), 70대 74명(43.5%), 80대 18명(10.6%), 90대 12명(7.1%), 90대 이상이 12명(1.8%)로 70대의 참여율이 가장 높았다. 학력은 무학 7명(4.1%), 초졸 23명(13.5%), 중졸 40명(23.5%), 고졸 58명(34.1%), 대졸 42명(24.7%)으로 고졸이 가장 많았으며, 두 번째로 대졸이 많았다. 이는 김삼덕(2013), 이명(2014), 함미경(2015)의 연구결과와 동일한 결과를 보인다. 이 연구는 노인 평생교육을 참여하는 노인들 중에서의 학력의 편중 도를 조사한 자료이다. 노인 인구가 늘어나면서 점차 학력이 높아지는 현상을 보이는 고령화 사회의 현상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표 III-1> 응답자의 일반적 특징

(N=170)

	구분	빈도(명)	백분율(%)
변수	남자	88	51.8
	여자	82	48.2
성별	60대	63	37.1
	70대	74	43.5
	80대	18	10.6
	90대	12	7.1
	90대 이상	3	1.8
학력	무학	7	4.1
	초졸	23	13.5
	중졸	40	23.5
	고졸	58	34.1
	전문대졸	42	24.7
	계	170	100.0

2. 설문조사

가. 측정도구 및 조사방법

평생교육을 통한 사회참여에 대한 인식을 측정하기 위한 측정도구는 Magen Dj & Perterson WA 가 개발한 도구를 재인용하여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수정, 보완하였다. 30명을 대상으로 예비 설문지를 조사한 결과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820$ 이었다. 교육전문가 3명의 자문 및 수정 보완을 거친 후 최종 설문지를 완성하였다. 그 구성요인은 다음과 같다. 사회참여활동의 빈도나 종류에 관한 문항 5문항, 사회참여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 6문항, 사회참여에 대한 만족도 5문항 등 총 16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각의 문항은 '전혀 아니다'(1점), '거의 아니다'(2점), '가끔 그렇다'(3점), '자주 그렇다'(4점), '항상 그렇다'(5점)의 Likert형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0.851이었다.

<표 III-2> 설문지의 해당 문항 및 신뢰도

영역	문항수	신뢰도 Cronbach's α
사회참여에 대한 빈도와 종류	5	.616
사회참여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	6	.638
사회참여에 활동에 대한 만족도	5	.830
계	16	.851

본 연구에서 사용된 측정도구는 평생교육의 참여 실태 및 요구, 수강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와 사회참여 활동에 대한 인식과 견해차이가 어떠한지를 조사하기 위한 설문지이다. 연구에 사용된 설문지는 개인적 변인, 노인교육프로그램 실태, 수강만족도, 참여활동, 사회참여활동에 대한 생각 등 다섯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부산시 남구, 수영구, 해운대구, 북구, 기장에 있는 노인 평생교육기관의 평생교육대상자들을 중심으로 노인학습자 총 35명에게 예비 설문지를 투여하였다.

예비설문지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 사용된 200부의 설문지를 수행한 후 회수된 설문지 중에서 일부 미 응답이 포함된 누락된 자료 30부를 제외한 총 170부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대상자에게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고 수집된 자료는 연구 목적으로만 사용하며, 대상자의 익명성과 자율성을 보장한다는 내용의 동의를 구하였다. 170부의 16문항에 대한 Cronbach's $\alpha = .851$ 로 문항간의 내적 일관성이 양호한 것으로 나왔다.

나.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통계 프로그램 SPSS WIN 2.2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할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노인평생교육프로그램 학습자에게 필요한 참여 실태 및 요구, 일반적인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빈도와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나. 노인학습자의 개인적인 배경변인(성별, 연령, 학력)에 따라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와 사회참여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교차분석을 통해 응답빈도를 산출하고, t-test 와 일원배치분산분석으로 산출하였다.

IV. 연구결과 및 논의

1. 노인의 평생교육프로그램 참여 실태

가. 평생교육프로그램 참여 현황

노인평생교육프로그램 수강자들을 대상으로 수업에 참여한 수강횟수와 수강기간과 참여동기, 프로그램 종류를 조사하였다. 노인평생교육프로그램 수강 횟수는 주 1회 이하 참여자 39명(22.9%), 주 2회 참여자 64명(37.6%)으로 평생교육수강자들 중 주 2회 수강하는 참여 인원의 빈도가 가장 많았다. 주 5회 참여대상자가 9명(5%)으로 통계적으로 제일 낮은 수치를 보였다.

노인평생교육프로그램 수강자들을 대상으로 수강기간에 대해 조사한 결과 2년 이하 39명(22.9%)으로 가장 높고, 6개월 이하 32명(18.8%)으로 가장 낮았다. 이 조사 자료를 보면 통계적으로 2년 이하로 수강한 인원이 가장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수강자들 중 10년 이상 꾸준히 수강하신 분들도 종종 있었지만 대체적으로 2년 전후로 평생교육을 지속적으로 수강하였다는 연구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본 연구에 비해 전라북도지역 대상지역을 연구한 김삼덕(2013)과 공주지역을 연구한 함미경(2015)의 연구에서는 평균 참여 기간은 4년~5년이였다. 서울지역을 연구한 이부일(2009)의 연구에서는 평균 참여 기간은 1년~1년 3개월이였다. 이는 대상자들의 참여 지역적 특성에 따라 대상자들의 참여도와 평생교육프로그램 홍보에 따른 대상자들의 선호도 차이로 인한 결과의 상이성에 차이가 있음을 시사한다.

노인평생교육프로그램 수강자들을 대상으로 참여 동기에 관해 조사한 결과 여가와 취미, 학습요구, 봉사활동, 자기발전, 활기찬 노후의 문항 중에서 자기발전이 51명(30%)으로 가장 높고, 여가와 취미 48명(28.2%), 활기찬 노후 45명(26.5%), 학습요구 16명(9.4%), 봉사활동 10명(5.9%)순으로 응답하였다. 이는 통계적으로 평생교육을 수강하는 노인들이 대체적으로 자기 발전을 위하여 평생교육을 수강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봉사활동을 위한 항목에서는 가장 낮게 나타났는데 봉사활동에 대해서 몇몇 분들은 젊었을 때는 봉사활동을 많이 다녔으나 나이도 들고 몸도 불편한 부분이 많아서 활동에 무리가 되어 봉사활동을 못한다고 하신 분들도 있었다. 신체적 노화 영향으로 봉사활동 보다 주로 자기 발전을 위한 목적으로 평생교육을 수강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전라북도지역을 연구한 김삼덕(2013)의 연구 자료에서는 남성과 여성에 대해 성별로 차이를 두고 조사했는데 남성은 건강과 여가를 위해, 여성은 배움의 즐거움과 새로운 친구와의 만남을 위해서 라는 항목으로 각각 다른 참여 동기를 보였다. 공주지역을 연구한 함미경(2015)의 연구에서는 노인들이 평생교육에 참여하는 주된 동기로는 보람된 여가활동을 위해, 스트레스 해소와 삶의 활력을 위해, 건강관리를 위해, 배움을 통해 나를 알고 삶의 의미를 깨닫기 위해, 주변사람들과 어울리고 싶어서 순으로 조사되었다. 비록 명칭은 다르지만 연구자와 비슷한 내용인데 이 연구의 노인들은 평생교육활동이 학습내용자체나 어떤 목적을 위해 참여하는 것보다 새로운 만남과 같은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건강하고 활기찬 생활을 하기 위해 참여한다는 참여 동기를 알 수 있다. 서울지역을 연구한 이부일(2009)의 연구에서는 노인들의 평생교육프로그램 참여 동기는 인간관계에 도움(16.4%)이 된다는 항목이 가장 높았으며, 일상생활의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15.4%), 삶의 활력을 위해(14.0%)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통계적으로 노인들이 신체적·사회적·심리적으로 많은 변화를 겪으며

위축되고 소외감을 느끼는 시기로 인하여 평생교육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인간관계를 넓히고 비슷한 연배와의 사귀를 통해 마음의 위로와 소속감을 얻기 위한 목적이 가장 높은 것으로 해석 할 수 있다. 또한 노년기에 겪는 심리적 스트레스를 극복하고 무기력한 삶을 활기차고 생동감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평생교육을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자의 연구 결과와 참고 논문의 결과와 다소 차이가 있는데 이는 지역별 대상자들의 평생교육기관을 참여하는 선호도에 차이가 있는 것 같다.

<표 IV-1>프로그램 참여 현황 및 기간과 동기 및 수강프로그램(N=170)

구분		빈도(명)	백분율(%)
수강 횟수	주1회 이하	39	22.9
	주2회	64	37.6
	주3회	44	25.9
	주4회	14	8.2
	주5회	9	5.3
수강 기간	6개월 이하	32	18.8
	1년 이하	32	18.8
	2년 이하	39	22.9
	3년 이하	34	20.0
	4년 이하	33	19.4
참여 동기	여가, 취미	48	28.2
	학습요구	16	9.4
	봉사활동	10	5.9
	자기발전	51	30.0
	활기찬 노후	45	26.5
프로 그램 종류	예술	38	22.4
	정서	5	2.9
	어학	18	10.6
	운동	42	24.7
	정보화	67	39.4

대상자들이 참여하는 평생교육프로그램 종류를 살펴보면 컴퓨터 등 정보화과정 39.4%(67명), 건강과 관련된 운동 과정 42명(24.7%), 음악 미술 등 예술 과정 22.4%(38명), 한글교육 및 외국어 같은 어학 교육 과정 10.6%(18명), 원예치료 및 연극영역 등 2.9%(5명)정서과정으로 나타났다. 이는 참여 대상자들이 현재 수강하는 프로그램 종류에 대해서 조사한 것인데 설문대상자들은 대체적으로 컴퓨터, 정보화 과정의 수강자들이 많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나. 희망하는 평생교육프로그램

노인평생교육프로그램 수강자들을 대상으로 앞으로 수강하길 희망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수요를 조사한 결과는 <표 IV-2>와 같다. 건강교육 83명(48.8%)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어학교육 35명(20.6%), 예술교육 33명(19.4%), 정서교육 18명(10.6%), 컴퓨터 1명(0.6%)순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통계적으로 노인평생교육프로그램 대상자들이 대체적으로 건강교육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공주지역을 연구한 함미경(2015)과 서울지역을 연구한 이명(2014)의 연구 결과와 같은 결과를 찾아 볼 수 있다. 또한 전라남도지역민 대상으로 연구한 김삼덕(2013)의 연구에 따르면 ‘여성보다 남성이 건강 관련프로그램의 요구도가 높았다’, ‘배우자 유무에 따른 건강 관련 프로그램의 경우 배우자가 있는 대상자가 없는 대상자보다도 더 강한 요구도를 보였다’라는 연구결과를 얻었다.

<표 IV-2> 평생교육 프로그램 희망수강과목

(N=170)

구분	빈도(명)	백분율(%)
예술교육	33	19.4
정서교육	18	10.6
어학교육	35	20.6
건강교육	83	48.8
컴퓨터	1	0.6
계	170	100

다.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기관에 바라는 점

노인평생교육프로그램 수강자들을 대상으로 운영기관에 바라는 희망 건의에 대해 조사한 결과는 <표 IV-3>과 같다.

다양한 과목, 쾌적한 환경, 교육비 인하, 강사의 전문화, 사회참여자리마련의 항목 중에서 다양한 과목이 79명(46.5%)으로 가장 높았고, 쾌적한 환경 43명(25.6%), 사회참여 자리마련 21명(12.4%), 강사의 전문화에 20명(11.8%), 교육비 인하가 7명(4.1%)순으로 나타났다.

이 조사 결과 통계적으로 평생교육프로그램 종류에 대해서 듣고 싶은 과정이 많은데 현재 개설되는 프로그램의 수가 많지 않음으로 수강하고자 하는 요구에 대한 아쉬움을 알 수 있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본인이 원하는 수업을 듣기 원하는 수강생들의 요구를 알 수 있다. 또한 연구자가 직접 노인평생교육기관을 방문하면서 설문을 부탁드렸는데 각 센터마다 건물의 시설에 대한 차이가 많았다. 아무래도 최근에 지어진 건물은 깨끗하고 편의장소가 구비된 곳도 있었지만 노후되고 협소한 센터도 있었고 노인

복지관의 특성상 노인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이 있어서 간단히 차를 마시면서 쉴 공간이 구비된 곳도 있었다. 저렴한 금액에 차를 마시면서 담소를 나눌 수 있는 공간을 통해 정보 및 정서를 교감 할 뿐더러 노인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러므로 노인평생교육기관에서 만남의 장소와 같은 시설을 운영 한다면 복지 공간으로서의 활용뿐만 아니라 노인 경제활동의 장으로서도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표 IV-3> 평생교육 운영기관에 바라는 점 (N=170)

구분	빈도(명)	백분율(%)
다양한 과목 수	79	46.5
쾌적한 환경	43	25.6
교육비 인하	7	4.1
강사의 전문화	20	11.8
사회참여자리	21	12.4
계	170	100

라. 희망하는 사회참여 활동분야

노인평생교육프로그램 수강자들을 대상으로 평생교육프로그램을 통해 사회참여 활동도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는 <표 IV-4>와 같다.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이 81명(47.6%)으로 가장 높고, ‘보통’ 55명(32.4%), ‘매우만족’ 25명(14.7%), ‘불만족’ 5명(2.9%), ‘매우 불만족’ 4명(2.4%)순으로 통계적으로 만족하다는 결과가 나타났다.

노인평생교육프로그램 수강자들을 대상으로 사회참여분야와 기회증진을 위해서 평생교육을 통해 앞으로 어떤 활동을 하길 원하는가에 대해서는 ‘봉사형’으로 사회참여를 희망하는 부분이 71명(41.8%)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교육형’ 44명(25.9%), ‘재능기부’ 23명(13.5%), ‘직업 활동’과 ‘기타’가 각각 16명(9.4%)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 결과에서는 통계적으로 수강자들이 본인이 가진 재능과 지적 자산을 봉사정신으로 활용되기를 희망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위의 결과를 보면 평생교육으로 인하여 자기발전을 도모하고 자신의 역량을 강화하여 자신의 지적 자산을 봉사활동으로 사회에 참여하여 지역사회에 환원되는 순기능적인 역할을 볼 수 있다.

서울지역을 연구한 이명(2014)의 연구에서는 사회참여와 기회증진에 대한 활동에 대한 연구에 의하면 종교 활동참여 2.83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여가활동참여’ 2.75점, ‘교육학습활동참여’ 2.50점, ‘정치활동참여’ 2.44점, ‘경제활동참여’ 1.72점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제활동참여는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나 노인들의 경제활동의 낮은 참여 실태를 보여주고 있다.

노인평생교육 프로그램 수강자들을 대상으로 사회참여활동에 대한 본인의 평소에 갖는 생각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 ‘삶의 활력소’가 58명(34.1%)으로 가장 높았으며 ‘적극적으로 사회참여활동에 참여하겠다’, 46명(27.1%), 사회참여활동을 통해 많은 사람들과 교류할 수 있어서 ‘사회참여활동은 꼭 필요하다’, 라는 응답자가 39명(22.9%), ‘좀 더 다양한 사회참여활동이 생겼으면 좋겠다’ 라는 응답자가 27명(15.9%) 순으로 나타났다.

위의 결과로 보아 수강생들은 통계적으로 평생교육이 삶의 활력소가 되므로 평생교육프로그램에 적극적인 참여를 하기를 원하고 많은 사람들과 서로 교류하며 사회참여를 할 수 있어서 평생교육이 꼭 필요하며 좀 더 다양한 사회참여 활동으로 발전되기를 희망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IV-4> 희망하는 사회참여 활동분야 (N=170)

구분		빈도(명)	백분율(%)
사회 참여 활동 도	매우만족	25	14.7
	만족	81	47.6
	보통	55	32.4
	조금불만족	5	2.9
	매우만족	4	2.4
참여 분야	교육형	44	25.9
	봉사형	71	41.8
	재능기부	23	13.5
	직업	16	9.4
	기타	16	9.4
사회참여 활동에 대한 생각	적극적 참여활동 희망	46	27.1
	사회참여 활동이 꼭 필요	39	22.9
	삶의 활력소	58	34.1
	다양한 참여활동 희망	27	15.9

마. 사회참여를 위한 인식에 대한 기회증진의 필요 요소

노인평생교육프로그램 수강자들을 대상으로 노인들의 사회참여를 위한 인식에서 기회증진의 필요 요소 중 재정적 지원, 인식의 변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전문적인 교육, 전문적인 강사의 강의 항목으로 조사한 결과는 <표 IV-5>와 같다. ‘재정적 지원’ 53명(31.2%),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41명(24.1%), ‘전문적인 교육’ 28명(16.5%), ‘인식의 변화’가 24명(14.1%)순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를 통해서 사회참여 활동을 위한 기회증진의 필요 요소는 통계적으로 첫째, 정부의 재정적 지원으로 노인평생교육기관의 프로그램운영 및

시설보수, 강사 섭외 등 기관의 운영에 가장 필요한 요소라고 수강자들이 문제점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었다. 둘째,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수강자들의 요구를 알 수 있었다. 이런 수강자들의 다양한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는 지금까지 현재 진행되어 왔던 일반적인 프로그램에서 더욱 전문화 되고 다양한 과목을 요구하는 것으로 보인다. 셋째, 전문 강사와 인식의 변화를 응답한 대상자의 수가 24명으로 같은 수치다. 전문지식에 대한 지적 욕구에 대한 필요성은 평생교육활동을 하면서 지적욕구충족을 위해 필요한 요소인 것 같다.

<표 IV-5> 사회참여 활동을 위한 기회증진의 필요 요소 (N=170)

구분	빈도(명)	백분율(%)
재정적 지원	53	31.2
인식의 변화	24	14.1
다양한 교육	41	24.1
전문적 교육	28	16.5
전문 강사	24	14.1

바. 사회참여활동에 대한 참여도

노인평생교육프로그램 수강자들을 대상으로 교육활동에 대해 조사한 결과는 <표 IV-6>과 같다.

<표 IV-6> 평생교육 대상자의 사회참여활동 (N=170)

구분		빈도(명)	백분율(%)
정치 참여도	항상 그렇다	1	0.6
	자주 그렇다	5	2.9
	가끔 그렇다	9	5.3
	거의 아니다	17	10.0
	전혀 아니다	138	81.2
교육 참여도	항상 그렇다	87	51.2
	자주 그렇다	43	25.3
	가끔 그렇다	39	22.9
	거의 아니다	1	0.6
	전혀 아니다	0	0

정치활동에 대해 조사한 결과 ‘전혀 활동을 하지 않는다’라고 응답한 사람이 138명(81.2%)이며 ‘거의 아니다’, 17명(10.0%), ‘가끔 그렇다’ 9명(5.3%), ‘자주 그렇다’ 5명(2.9%), ‘항상 그렇다’ 1명(0.6%)으로 통계적으로 거의 정당과 같은 정치 활동을 하는 사람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왔다. 사회생활을 일선에서 하는 시기를 지나와서 현직에서 정치에 참여하지는 않으나 투표활동에 대한 참여율은 높은 것 같다.

지역사회 및 복지관에서 하는 교육에 참여하고 있다. 라는 문항으로 조사한 결과 ‘항상 그렇다’ 87명(51.2%), ‘자주 그렇다’ 43명(25.3%), ‘거의 아니다’가 1명(0.6%)인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적으로 평생교육참여기관을 지

역사회나 복지관을 이용하여 참여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부일(2009)의 선행연구에서도 ‘노인복지관에서 평생교육을 참여한다는 응답자가 61.5%로 나타났다. 그 다음은 동사무소 문화센터 17.0%, 백화점 문화센터 5.2%로 나타났다’. 김종남(2008)의 연구에서 ‘노인들이 선택한 평생교육참여기관 으로서 나타난 결과는 노인복지관이 전체 73.5%로 이는 노인들이 평생교육 기관으로서 적합한 기관’이라고 한 결과처럼 실제 노인들의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위한 참여 기관은 노인복지관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2. 평생교육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

가. 평생교육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

노인평생교육프로그램 수강자들을 대상으로 현재 수강 중인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와 만족하는 이유와 불만족 이유에 대해 조사한 결과는 <표 IV-7>과 같다. 수강하는 프로그램에 대해 만족이 83명(48.8%)으로 높게 나타났다, 조금 불만족 6명(3.5%)으로 낮게 나타났다. 이 조사 자료를 보면 통계적으로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만족하는 이유에 대한 항목을 건강유지, 친구 사귀, 새로운 배움, 사회참여 기대, 성공적 노후에 대한 문항으로 조사한 결과, 새로운 배움에 67명(39.4%)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건강유지 38명(22.4%), 친구 사귀와 성공적 노후 항목 각각 25명(14.7%), 사회참여 기대 15명(8.8%)순으로 나타났다. 통계적으로 수강자들이 새로운 배움에 대한 지적욕구를 위해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수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만족에 대한 항목인 수강료 부담, 다양성부족, 시설의 불편, 교통 불편, 사회참여에 대한 기대 희소 등에 대해 조사한 결과, 다양성 부족 103명 (60.6%)으로 가장 높으며, 시설불편이 26명(15.3%), 교통 불편이 19명 (11.2%), 사회참여에 대한 기대 희소 12명(7.1%), 수강료부담이 10명 (5.9%)순으로 나타났다. 이 조사 자료를 보면 통계적으로 60%가 넘는 수강생들이 프로그램의 다양성에 대해 요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IV-7> 평생교육 프로그램 만족도 (N=170)

구분	빈도(명)	백분율(%)
만족도	매우 만족	41
	만족	83
	보통	30
	조금 불만족	6
	매우 불만족	10
만족이유	건강유지	38
	친구 사귀	25
	새로운 배움	67
	사회참여기대	15
	성공적 노후	25
불만족이유	수강료부담	10
	다양성부족	103
	시설 불편	26
	교통 불편	19
	사회참여에 대한 기대희소	12

노인평생교육프로그램 수강자들을 대상으로 교육프로그램이 사회참여 인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조사한 결과는 <표 IV-8>과 같다. ‘만족’이 81명(47.6%)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보통’ 55명(32.4%), ‘매우만족’ 25명(14.7%), ‘조금불만족’ 5명(2.9%), ‘매우 불만족’ 4명(2.4%) 순으로 나타났다. 이 조사 자료를 보면 통계적으로 평생교육프로그램으로 사회참여인식을 하는 부분에 대해 62.3%가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8> 평생 교육 프로그램을 통한 사회참여인식 영향 (N=170)

구분	빈도(명)	백분율(%)
매우 만족	25	14.7
만족	81	47.6
보통	55	32.4
조금 불만족	5	2.9
매우 불만족	4	2.4
계	170	100

노인평생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성별, 나이, 기간, 학력별 만족도는 <표 IV-9>와 같다. 남자가 26명(57%), 여자가 62명(50%)으로 만족하다는 결과가 나타났다. 나이별로 보면 60대가 56명(45%)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70대, 80대, 90대 순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대도시와 중소도시 노인들을 대상으로 연구한 유영옥(2014), 전라북도 지역으로 연구한 함미경(2015)의 연구 결과와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이 결과는 노인의 신체적 심리적 노화에 따른 자신감과 자존감이 낮아지는 현상과 같다고 할 수 있으며 또한 주변의 친근한 관계의 지인들과 사랑하는 배우자와의 사별로 인해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상실감의 증가와 고독감이 증가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연령이 적을수록 상대적으로 건강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다양한 사회참여활동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사회참여활동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IV-9> 평생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성별, 나이, 기간, 학력별 만족도

			(N=170)	
			빈도	백분율(%)
성별	만족	남자	26	57
		여자	62	50
	불만족	남자	62	50
		여자	20	43
나이	만족	60대	56	45
		70대	54	44
		80대	10	8
		90대	3	2
		90대 이상	1	1
	불만족	60대	7	15
		70대	20	43
		80대	8	17
		90대	9	20
		90대 이상	2	4
기간	만족	6개월 이하	26	21
		1년 이하	20	16
		2년 이하	27	22
		3년 이하	28	23
		4년 이하	23	19
	불만족	6개월이하	6	13
		1년이하	12	26
		2년이하	12	26
		3년이하	6	13
		4년이하	10	22
	만족	무학	5	4
		초졸	18	15
		중졸	32	26
		고졸	39	31
		전문대졸	30	24
학력	불만족	무학	2	4
		초졸	5	11
		중졸	32	26
		고졸	39	31
		전문대졸	30	24
	만족	무학	2	4
		초졸	5	11
		중졸	32	26

기간별 만족도는 3년 이하가 28명(23%)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2년, 6개월 이하, 4년, 1년, 6개월 이하 순으로 나타났다. 학력별 만족도는 고졸이 39명(31%)으로 나타났고 중졸, 전문대졸, 초졸, 무학 순으로 통계적으로 높은 학력의 노인들의 만족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평생교육프로그램의 만족이유에 따른 성, 나이, 기간, 학력에 대한 결과는 <표 IV-10>과 같다.

성별 만족이유 중에 새로운 배움에 대해 남자가 41명(61%), 여자가 26명(39%)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연이어 남자는 성공적 노후, 건강유지, 사회참여기대, 친구 사귀 등의 순이며, 여자는 건강유지, 친구 사귀, 사회참여기대, 성공적 노후 순으로 나타났다.

나이별 만족이유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난 새로운 배움 항목은 총 67명으로 70대가 35명(52%)으로 가장 높으며, 60대가 29명(43%), 80대가 3명(4%)순으로 나타났다. 건강유지 항목에서는 총 38명으로 60대가 13명(34%), 70대가 10명(26%), 80대가 9명(24%), 90대가 5명(13%), 90대 이상이 1명(1%) 순으로 나왔다.

기간별 만족이유로는 새로운 배움에 6개월 이하가 가장 높고, 4년 이하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만족이유에 따른 최종 학력과의 관계를 보면 새로운 배움에서 고졸이 25명(37%)으로 가장 높고, 무학이 4명(6%)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는 김삼덕(2013), 이명(2014), 함미경(2015)의 연구에서도 동일한 결과로 이는 학력이 높을수록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면서 지적욕구에 대한 만족을 얻고 정보화 시대의 시대적 흐름에 동참하여 보다 여유로운 삶을 통해 얻는 만족감이 큰 것을 알 수 있다.

<표 IV-10> 만족이유에 따른 성별, 나이, 기간, 학력별 비율 (N=170)

구분		빈도	백분율(%)
성별	건강유지	남자	15
		여자	23
	친구사귀	남자	6
		여자	19
	새로운 배움	남자	41
		여자	26
	사회참여기대	남자	7
		여자	8
	성공적노후	남자	19
		여자	6
나이	건강유지	60대	13
		70대	10
		80대	9
		90대	5
		90대이상	1
	친구사귀	60대	6
		70대	15
		80대	3
		90대	1
		90대이상	0
	새로운배움	60대	29
		70대	35
		80대	3
		90대	0
		90대이상	0
	사회참여기대	60대	7
		70대	6
		80대	2
		90대	0
		90대이상	0
	성공적 노후	60대	8
		70대	8
		80대	1
		90대	6
		90대이상	2

기간	건강유지	6개월이하	5	13
		1년 이하	8	21
		2년 이하	9	24
		3년 이하	7	18
		4년 이하	9	24
	친구사귀	6개월이하	3	12
		1년 이하	4	16
		2년 이하	7	38
		3년 이하	5	20
		4년 이하	6	24
	새로운배움	6개월이하	18	27
		1년 이하	14	21
		2년 이하	14	21
		3년 이하	14	21
		4년 이하	7	10
	사회참여기대	6개월이하	3	20
		1년 이하	4	27
		2년 이하	5	33
		3년 이하	1	7
		4년 이하	2	13
	성공적 노후	6개월이하	3	12
		1년 이하	2	8
		2년 이하	4	16
		3년 이하	7	28
		4년 이하	9	36
학력	건강유지	무학	1	3
		초졸	4	11
		중졸	11	29
		고졸	15	39
		전문대졸	7	18
	친구사귀	무학	1	4
		초졸	13	52
		중졸	4	16
		고졸	3	12
		전문대졸	4	16

새로운배움	무학	4	6
	초졸	5	7
	중졸	15	32
	고졸	25	37
	전문대졸	18	27
사회참여기대	무학	0	00
	초졸	0	00
	중졸	5	33
	고졸	5	33
	전문대졸	5	33
성공적 노후	무학	1	4
	초졸	1	4
	중졸	5	33
	고졸	10	40
	전문대졸	8	32

나. 평생교육프로그램을 통한 사회참여활동 만족도

노인평생교육프로그램 수강자들을 대상으로 평생교육프로그램을 통한 사회참여활동 만족도에 대해 조사한 결과는 <표 IV-11>과 같다. 만족이 81명(47.6%)으로 가장 높고, 보통이 55명(32.4%)이며, 매우 만족이 25명(14.7%), 조금 불만족이 5명(2.9%), 매우 불만족이 4명(2.4%)순으로 나타났다. 이 조사 자료를 보면 수강생들의 62.3%가 통계적으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통한 사회참여 활동에 대해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표 IV-11>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통한 사회참여활동 만족도 (N=170)

구분	빈도(명)	백분율(%)
매우 만족	25	14.7
만족	81	47.6
보통	55	32.4
조금 불만족	5	2.9
매우 불만족	4	2.4
계	170	100

평생교육프로그램과 사회참여활동에 따른 만족도의 결과는 <표 IV-12>와 같다. 평생교육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에서 예체능 65명(38%), 어학 46명(27%), 정서 8명(5%), 정보화 5명(3%)순으로 예체능 활동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 결과는 함미경(2015)의 연구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참여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로 문화예술향상 프로그램이 64명(27.6%), 건강 프로그램이 54명(23.3%)로 문화예술향상 프로그램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나 문화예술에 대한 수업후의 만족도가 통계적으로 높은 것 같다.

평생교육프로그램이 사회참여활동의 인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만족도의 결과에서 예체능영역에 51명(30%), 어학 45명(42%), 정서 7명(7%), 정보화 3명(3%)순으로 만족하다는 결과가 나타났다. 위의 결과를 통해 평생교육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와 사회참여활동의 인식에 따른 만족도 모두에서 예체능영역에 대한 만족도 비율이 큰 것으로 보아 예체능영역에 대해서 많은 수강생들이 선호를 하지만 조사결과 예체능 영역에 대한 수업을 하지 못하는 기관이 많이 있었다. 수업장소의 확장과 재정적인지원의 확보를 통한 예체능 수업에 대한 지원이 매우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표 IV-12> 프로그램과 사회참여활동에 따른 만족도 (N=170)

			프로그램				전 체
			예 체 능	정 보 화	정 서	어 학	
만 족 도	만족	빈도	65	5	8	46	124
		%	38	3	5	27	73
	불만족	빈도	15	0	10	21	46
		%	9	0	6	12	27
전 체		빈도	80	5	18	67	170
		%	47	3	11	39	100
사 회 참 여 활 동	만족	빈도	51	3	7	45	106
		%	30	2	4	26	62
	불만족	빈도	29	2	11	22	64
		%	17	1	7	13	38
전 체		빈도	80	5	18	67	170
		%	47	3	11	39	100

사회참여활동에 따른 성별, 나이별, 기간별, 학력에 따른 만족은 표<IV-13>과 같다. 사회참여활동에 대한 성별의 만족도를 보면, 남자가 55명(52%), 여자가 51명(48%)으로 ‘만족하다’고 응답하였고, 나이별로 보면 60대가 47명(44%)으로 ‘만족하다’고 응답하였다. 기간별로는 2년 이하와 3년 이하가 각각 23명(22%)으로 ‘만족하다’고 응답하였다. 학력에 따른 사회참여활동에 대한 만족도를 보면 고졸이 22명(34%)으로 ‘만족하다’는 결과를 보였다. 이는 김지환(2010)의 연구와 같이 학력이 높을수록 사회참여활동에 대해 적극적이고 친근하다는 결론과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 보인다.

<표 IV-13> 사회참여활동과 성별, 나이, 기간, 학력 (N=170)

구분		빈도	백분율(%)
성별	만족	남자	55
		여자	51
	불만족	남자	33
		여자	31
나이	만족	60대	47
		70대	45
		80대	10
		90대	4
		90대 이상	0
	불만족	60대	16
		70대	29
		80대	8
		90대	8
		90대 이상	3
기간	만족	6개월 이하	21
		1년 이하	17
		2년 이하	23
		3년 이하	23
		4년 이하	22
	불만족	6개월 이하	11
		1년 이하	15
		2년 이하	16
		3년 이하	11
		4년 이하	11

학력	만족	무학	3	5
		초졸	9	14
		중졸	12	19
		고졸	22	34
		전문대졸	18	28
	불만족	무학	4	4
		초졸	14	13
		중졸	28	26
		고졸	36	34
		전문대졸	24	23

3. 노인의 사회참여에 대한 인식

가. 성별과 사회참여에 따른 검정

사회참여의 3개의 하위요소인 참여활동 빈도, 긍정적 태도, 만족도에 따른 사회참여에 대한 인식이 성별에 따라 어떤 차이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t-검정을 한 결과는 <표 VI-14>와 같다.

성별과 사회참여에 따른 하위요소는 유의미하지 않으나 전체 항목에서는 유의미한 ($p < .05$) 결과가 나타났다. 참여활동 빈도에서 여성이(3.60) 남성보다(3.51) 높게 나타났고, 긍정적 태도에서도 여성이(4.03) 남성(3.71)보다 높게 나타났고, 만족도에서도 여성이(4.34) 남성(4.19)보다 높게 나타났다. 그

러므로 성별에 따른 사회참여활동에 대한 노인들의 인식에 따른 참여활동 빈도, 긍정적태도, 만족도 모두 여성이 남성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는 선행 연구인 이명(2014)의 연구결과에서도 사회참여활동 만족도에서 여성이 남정보다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는 남성들은 정년퇴직이나 과거 사회활동에서의 상실로 인해 다소 기대가 떨어지며 오히려 가사활동이외에 평소 사회참여에 대한 기회가 적었던 여성들이 평생교육을 통해 사회참여 활동을 함으로서 얻은 만족이 크게 느껴진 것을 유추해 볼 수 있다.

<표 IV-14> 성별과 사회참여

구분	M		SD		t	p
	남성 (n=88)	여성 (n=82)	남성 (n=88)	여성 (n=82)		
참여활동빈도	3.51	3.60	.47	.56	-1.209	.208
긍정적 태도	3.71	4.03	.47	.57	-3.905	.092
만족도	4.19	4.34	.57	.62	-1.708	.186
전체	3.55	3.80	.36	.48	-3.792	.024

나. 학력과 사회참여에 따른 검정

학력에 따른 사회참여의 3개의 하위요소인 참여활동 빈도와 긍정적 태도, 만족도에 대한 차이가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일원배치 분산분석을 실시하였고, 분산분석의 결과는 <표 IV-15>와 <표 IV-16>에 나타내었다.

참여활동 빈도에서는 무학이 3.69로 가장 높으며, 전문대졸이 3.48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긍정적 태도에서는 초졸이 4.0으로 가장 높고, 전문대졸이 3.69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만족도에서는 초졸이 4.5로 가장 높고, 전문대졸이 3.99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표Ⅳ-16>에서 유의확률이 .05보다 모두 크므로 학력에 따른 참여활동 빈도, 긍정적 태도는 학력에 따라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학력에 따라 사회참여에 있어서 만족도를 성별에 따라 검증한 결과 F값은 3.576로 $p < .05$ 이다. 그러므로 유의수준 .05에서 두 집단(성별)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학력과 사회참여에 따른 전체항목에서 검증한 결과 F값은 2.220으로 $p < .01$ 이다. 그러므로 유의수준 .01에서 전체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표 Ⅳ-15> 학력에 대한 평균과 표준편차 (N=170)

구분	무학(n=7)		초졸(n=23)		중졸(n=40)		고졸(n=58)		전문대졸(n=42)	
	M	SD	M	SD	M	SD	M	SD	M	SD
참여활동 빈도	3.69	.36	3.59	.60	3.62	.49	3.54	.55	3.48	.48
긍정적 태도	3.98	.33	4.00	.66	3.88	.57	3.89	.56	3.69	.45
만족도	4.29	.23	4.50	.53	4.31	.61	4.33	.57	3.99	.62
전체	3.98	.13	4.04	.54	3.93	.48	3.92	.46	3.72	.45

<표 IV-16> 학력과 사회참여

(N=170)

		제 곱 합	df	평균 제 곱	F	p
참여 활동 빈도	집 단-간	.529	4	.132	.487	.745
	집 단-내	44.766	165	.271		
	합 계	45.295	169			
긍 정 적 태 도	집 단-간	2.023	4	.506	1.683	.156
	집 단-내	49.589	165	.301		
	합 계	51.613	169			
만 족 도	집 단-간	4.775	4	1.194	3.576	.008
	집 단-내	55.069	165	.334		
	합 계	59.844	169			
전 체	집 단-간	1.919	4	.480	2.220	.069
	집 단-내	35.648	165	.216		
	합 계	37.567	169			

<표 IV-15>에서 학력과의 관계에서 초등학교 졸업의 학력을 가진 사람이 전문대졸 학력을 가진 사람보다 평생교육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명(2014)의 연구에서는 고졸이하 집단보다는 대졸의 사회참여에 대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고, 함미경(2015)의 선행 연구와 같이 나타났으며 참여만족도에서도 무학이 그 이상의 학력에 비해 참여만족도가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이는 어려운 환경으로 인해 배움의 기회를 잃어버린 대상자들이 비록 나이가 들어 노인이 된 지금에서야 평생교육으로 인한 배움에 대한 갈증을 해결 할 수 있는 만족감이 상대적으로 큰 것임을 유추해 볼 수 있다.

다. 프로그램의 내용과 사회참여에 따른 검정

평생교육프로그램의 내용이 사회참여활동에 대한 인식에 어떤 영향이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일원배치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산분석의 결과는 <표 IV-17> 과 <표 IV-18>에 나타내었다.

프로그램 내용에 대한 참여활동 빈도에서 예술 영역이 3.71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정서영역이 2.80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긍정적 태도에서 예술 영역이 4.06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정서영역이 3.40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만족도에서 예술 영역이 4.39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정서영역이 3.72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는 예술 영역에 대한 수강자들의 만족도가 다른 영역에 비해서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함미경(2015)의 연구에서도 예술영역이 다른 영역에 비해 활동태도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결과와 동일하다. 일반적으로 문화 예술 영역은 대상자들이 접할 기회가 별로 없을뿐더러 활동 후 결과물에 대한 만족도가 높고 수업을 하면서 자존감 향상에 기여하는 영향력이 큼으로 예술 영역에 대한 만족도가 큰 것 같다.

<표 IV-17> 프로그램 내용에 대한 평균과 표준편차 (N=170)

구분	예술(n=38)		정서(n=5)		어학(n=18)		운동(n=42)		정보화(n=67)	
	M	SD	M	SD	M	SD	M	SD	M	SD
참여활동 빈도	3.71	.47	2.80	.45	3.60	.51	3.60	.55	3.51	.49
긍정적태도	4.06	.47	3.40	.38	3.80	.54	4.00	.60	3.74	.54
만족도	4.39	.56	3.72	.67	4.20	.60	4.40	.61	4.17	.60
전체	4.05	.40	3.31	.40	3.90	.45	4.00	.48	3.80	.47

<표 VI-18>에서 프로그램 내용에 따라 사회참여 활동태도에 대한 인식을 알아 본 결과 프로그램 내용이 사회참여 활동에 유의미한($p<.05$)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위요소별로 보았을 때, 참여 활동빈도 와 긍정적태도, 만족도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p<.05$).

<표 IV-18> 프로그램 내용과 사회참여 (N=170)

		제곱합	df	평균 제곱	F	p
참여활동 빈도	집단-간	3.853	4	.963	3.836	.005
	집단-내	41.442	165	.251		
	합계	45.295	169			
긍정적 태도	집단-간	4.017	4	1.004	3.481	.009
	집단-내	47.596	165	.288		
	합계	51.613	169			
만족도	집단-간	3.330	4	.832	2.430	.050
	집단-내	56.514	165	.343		
	합계	59.844	169			
전체	집단-간	3.485	4	.871	4.218	.003
	집단-내	34.082	165	.207		
	합계	37.567	169			

라. 수강횟수와 사회참여에 따른 검정

수강횟수와 사회참여활동의 3개의 하위요소에 차이가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일원배치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산분석의 결과는 <표 IV-20>와 <표 IV-20>의 결과로 나타내었다.

참여활동 빈도에서 주 5회가 3.89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주 1회가 3.40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긍정적 태도에서는 주 5회가 4.20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주 1회이하가 3.68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만족도에서는 주 4회가 4.54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주 1회이하가 4.04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는 평생교육참여활동을 많이 할수록 긍정적 태도와 만족도가 높다는 통계 결과를 나타낸다. 그러므로 노인들의 사회참여를 통한 만족도와 긍정적 태도를 위해서 노인평생교육에 대한 지지와 관심이 매우 필요하다.

<표 IV-19> 수강횟수와 사회참여 평균차이 (N=170)

구분	주1회이하 (n=39)		주2회 (n=64)		주3회 (n=44)		주4회 (n=14)		주5회 (n=9)	
	M	SD	M	SD	M	SD	M	SD	M	SD
참여활동빈도	3.40	.51	3.56	.57	3.60	.44	3.64	.48	3.89	.43
긍정적 태도	3.68	.63	3.90	.54	3.84	.53	4.08	.39	4.20	.40
만족도	4.04	.68	4.34	.56	4.21	.58	4.54	.38	4.47	.56
전체	3.71	.53	3.93	.47	3.88	.43	4.09	.33	4.19	.34

수강횟수와 사회참여와의 관계에서 0.13으로 유의미하게($p<.05$) 나타났다. 그 하위요소인 긍정적태도, 만족도도 유의확률이 0.05보다 모두 작으므로 수강횟수에 따른 긍정적태도, 만족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20> 수강횟수와 사회참여 (N=170)

		제곱합	df	평균 제곱	F	p
참여활동 빈도	집단-간	2.155	4	.539	2.061	.088
	집단-내	43.140	165	.261		
	합계	45.295	169			
긍정적 태도	집단-간	3.055	4	.764	2.596	.038
	집단-내	48.557	165	.294		
	합계	51.613	169			
만족도	집단-간	3.974	4	.993	2.934	.022
	집단-내	55.870	165	.339		
	합계	59.844	169			
전체	집단-간	2.774	4	.694	3.289	.013
	집단-내	34.792	165	.211		
	합계	37.567	169			

김삼덕(2013)의 연구에서는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노인들이 주 3회 이상,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노인들은 주 1회 이하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했다($p<.001$). 이렇게 본 연구결과와 차이가 나는 이유는 연구자와 연구한 지역적 차이와 평생교육에 대한 개인적인 교육열의 차이로 인해 수강횟수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마. 수강기간과 사회참여에 활동태도에 따른 검정

수강기간과 사회참여의 3개의 하위요소에 차이가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일원배치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산분석의 결과는 <표 IV-22>의 결과로 나타내었다.

평생교육을 지금까지 참여한 활동 빈도에 대해서 4년 이하가 3.78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2년 이하가 3.40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긍정적 태도에서는 2년 이하가 3.8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4년 이하가 3.27로 가장 낮게 나타났으나 유의(N)하지는 않았다. 만족도에서는 4년 이하가 4.46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1년 이하가 4.01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만족도에서 유의확률이 0.05보다($p>.05$) 크므로 만족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결과를 통해 평생교육에 대한 참여기간이 길수록 만족도가 높다는 결과를 알 수 있다. 김삼덕(2013)의 연구에서는 참여기간이 1년 미만이 가장 높았고, 수강자가 3년 이상 참여한 결과는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연구자의 연구와는 차이가 많은 결과이다. 이는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강사의 자질 및 전문성에 따른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관의 운영시스템에 대한 만족도에 대한 차이도 있을 수 도 있다.

<표 IV-21> 수강기간과 사회참여 평균차이 (N=170)

구분	6개월 이하 (n=32)		1년 이하 (n=32)		2년 이하 (n=39)		3년 이하 (n=34)		4년 이하 (n=33)	
	M	SD	M	SD	M	SD	M	SD	M	SD
참여활동빈도	3.50	.59	3.51	.47	3.40	.54	3.58	.54	3.78	.40
긍정적태도	3.85	.68	3.70	.43	3.89	.57	3.83	.59	3.27	.43
만족도	4.19	.72	4.01	.52	4.33	.59	4.28	.54	4.46	.52
전체	3.85	.60	3.74	.34	3.89	.49	3.89	.47	4.89	.37

<표 IV-22> 수강기간과 사회참여 (N=170)

		제곱합	df	평균 제곱	F	p
활동빈도	집단-간	2.392	4	.598	2.300	.061
	집단-내	42.903	165	.260		
	합계	45.295	169			
긍정적태도	집단-간	1.865	4	.466	1.546	.191
	집단-내	49.748	165	.302		
	합계	51.613	169			
만족도	집단-간	3.529	4	.882	2.585	.039
	집단-내	56.315	165	.341		
	합계	59.844	169			
전체	집단-간	2.071	4	.518	2.407	.052
	집단-내	35.495	165	.215		
	합계	37.567	169			

V. 결론 및 제언

부산지역 노인평생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노인들의 인식에 대한 연구 결과,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노인평생교육프로그램 참여 실태를 파악한 결과, 조사대상자의 성별은 남성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 학력은 고졸인원이 많았으며, 수강기간은 2년 이하가 가장 많았다. 참여 동기에 관해 조사한 결과, 자기발전을 위해 수강한다고 응답한 대상자가 가장 많았다. 희망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건강교육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운영기관에 바라는 점은 다양한 과목을 통한 교육활동을 희망하는 수강생들의 요구가 높은 것을 알 수 있었고, 평생교육을 통한 기회증진을 위한 필요요소에는 경제적 지원이 가장 높았다. 이 연구결론으로 보아 노인평생교육 수강자들은 건강교육에 관심이 많고, 자기발전을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한 교육을 선호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고학력화 추세에서 노인평생교육에 대한 만족도와 노인평생교육에 대한 인식을 위해서 다양한 교육내용과 질적 수준을 높일 수 있는 전문적인 평생교육시스템의 운영이 시급한 시점이며, 노인평생교육에 인구사회학적 정부정책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그러므로 노인들의 연령과 학력수준, 건강여부에 알맞은 다양한 지원은 노인들의 최소한의 활동 범위를 넓혀주는 기회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노인들의 평생교육에 대한 참여기회를 확대시키는 결과를 가져 올 수 있다.

둘째, 평생교육프로그램에 대한 노인들의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현재 수강중인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이 높게 나타났다. 만족하는 이유는 수강자들이 새로운 배움을 위해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수강하였고, 불만족에 대해서

프로그램의 다양성 부족이 가장 높았다. 갈수록 고령 인구가 늘어나고, 고학력자들이 많아지고 있는 현 시점에서 평생교육의 다양성에 대한 요구가 절실한 것을 이 연구를 통해 더욱 더 알 수 있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노인들이 신체적·사회적·심리적으로 많은 변화를 겪으며 위축되고 소외감을 느끼는 시기에 평생교육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대인관계를 넓히고 비슷한 연배와의 사귀를 통해 마음의 위로와 소속감을 얻기 위한 목적이 높은 것으로도 추정해 볼 수 있다. 또한 노년기에 겪는 심리적 우울감을 극복하고, 날로 변화하는 정보화 사회에서 새로운 배움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평생교육에 참여하는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노인평생교육프로그램 중에서 가장 만족하는 프로그램은 예체능 프로그램이며, 사회참여활동에 대한 성별, 나이, 기간, 학력별 만족도는 다음과 같다. 만족비율에서 남자가 여자보다 모두 높게 나타났고, 60대의 만족도가 가장 높고, 2, 3년 이하의 기간을 수강한 대상자들의 만족도가 가장 높았다. 또한 고졸 수강자들의 만족비율이 모두 높게 나타났다. 참여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는 예체능 프로그램이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나 문화예술에 대한 만족도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셋째, 평생교육프로그램에 대한 노인들의 사회참여활동에 대한 인식의 하위요소는 참여빈도, 만족도, 긍정적 태도이고, 사회참여활동에 대한 인식과 성별과의 관계는 여성이 남성보다 참여빈도와 긍정적 태도, 만족도 모두 높게 나타나 여성의 사회참여율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학력에 따른 사회참여의 인식을 살펴보면 무학이 가장 높으며, 긍정적 태도나 만족도에서는 초졸이 가장 높고, 전문대졸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는 어려운 형편으로 배움의 기회를 놓친 분들이 노인평생교육 기관을 통해 배움의 기회를 충족할 수 있으므로 사회참여 인식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프로그램의 내용과 사회참여 인식에서 예술영역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하위요소 중 긍정적 태도와 만족도에서 모두 높게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로 보아 예술영역을 통한 수업이 성취도와 만족도 모두에서 큰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예술 영역에 대한 교육적인 지원이 더욱 많이 지원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수강횟수와 사회참여 인식에서는 참여활동 빈도, 긍정적 태도, 수강횟수가 많을수록 사회참여인식에 대한 만족도와 참여율이 높게 나타났다. 여가시간이 많은 노인들이 평생교육 활동을 통해 무료함과 외로움에서 활기차고 건강하게 시간을 보낼 수 있기 때문에 수강횟수가 사회참여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된다. 여가시간이 많은 노인들의 특성상 평생교육을 통한 사회참여의 기회를 높여 노후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보람되고 건강한 노후를 즐길 수 있다면 고령화로 인해 증가하는 노인들의 문제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본 연구는 부산의 노인평생교육프로그램을 수강하는 노인들의 인식에 대한 연구로써, 부산 지역이라는 제한된 지역과 적은 참여인원으로는 전체 평생교육을 통한 노인들의 인식을 도출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리고 평생교육을 통한 노인들의 사회참여 인식에 대한 하위요소에 대한 연구가 많이 부족하였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노인평생교육에서 노인들의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매개 변수를 적용하고 연구하여 평생교육을 통한 노인들의 삶의 변화에 대해 심도 있게 연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로 인해 향후 사회복지실천현장에서 노인평생교육의 발전에 기초자료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참 고 문 헌

- 김경옥 (2005), 노인교육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삼덕 (2013), 노인의 평생교육프로그램 만족이 성공적 노화의 사회적 요인에 미치는 영향. 원광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영란 (2006), 노인교실이용 노인의 여가활동 활성화에 관한 연구. 대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영순 (2016), 노인 평생교육의 활성화방안에 대한 연구.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학위논문.
- 고양곤 (2002), 교회 노인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연구.
- 김중서 외 (2004), 평생교육원론. 서울: 교육과학사.
- 보건사회연구원 (2012), 인구 고령화의 경제적 영향 분석 및 고령화 대응지수 개발. 보건사회연구원.
- 보건복지부 (2016), 노인복지시설현황.
- 보건복지부 (2016), 전국사회복지관현황.
- 심의보 외 (2012), 노인복지론. 서울: 양서원, 만족도에 관한 연구. 백석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송선희 외 (2011), 「노인교육론」.서울: 신정.
- 서강훈 (2013), 노인복지 정책과 사회보장제도.
- 유영옥 (2015), 대도시와 중소도시의 노인 평생교육프로그램 이용실태와 만족도에 관한 연구. 백석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 명 (2014), 사회관계망이노인의사회참여에미치는영향연구. 국제신학대학원대학교 상담복지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부일 (2006), 노인 평생교육시설 프로그램 참여 동기와 비 참여요인에 관

- 한 연구. 숭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소정 외 (2008), 2008년도 전국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실시를 위한 기초연구.
- 이채원 (2015), 노인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미술교육활성화 방안 연구. 단국 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통계청 (2013), 연도별 예상인구현황.
- 통계청 (2015), 인구총조사표.
- 통계청 (2016), 장래인구추계 2010-2060.
- 평생교육법. 제2조 1항.
- 한효섭 (2009), 노인교육학의 이해. 부성출판사.
- 허준수 (2010), 「노인복지 연구」 신정출판사.
- 한국노인인력개발원 (2009), 노인의 사회참여로 나타날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
- 함미경 (2015), 평생교육 참여특성 및 만족도가 노인의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공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Levasseur, M, Richard, L Gauvin & Raymond, E(2010). "Inventory and Analysis of Definitions of Social Participation foundin the Aging Literature: Proposed Taxonomy of Social Activities." Social Science & Medicine, 71, 2141-2149.
- Mangen, D. J. & Peterson, W. A(1982). "Social roles and participation in Social gerontology." Research instruments in social gerontology, Vol, 2, 24-25.
- Sadler, W. The third age: 6 principles of growth and renewal after forty. New York: Dacapo Press, 2000.Merriam, S. (2004).

<부록>

설문지

안녕하십니까?

본 설문지는 어르신들의 사회참여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기 위한 설문지입니다. 설문지에 응답해 주신 내용은 본 연구 이외에는 어떤 목적으로도 사용되지 않을 것이며, 연구의 자료로만 사용할 것입니다.

협조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모든 내용에 솔직하고 성심껏 응답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2017년 1월

부경대학교 일반대학원 수해양인적자원개발학과

지도교수 강 버 들
연구자 구 경 미

※ 통계법 제 33 조(비밀의 보호)

① 통계의 작성과정에서 알려진 사항으로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보호되어야 한다.

②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자료는 통계작성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수강 만족도

8. 현재 듣고 있는 교육프로그램의 만족도는 어떠하십니까?

- ① 매우 불만족 ② 조금 불만족 ③ 보통 ④ 만족 ⑤ 매우 만족

8-1. 현재 프로그램 내용에 만족하신다면 만족하는 이유를 하나만 고르세요.

- ① 건강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된다 ② 친구를 사귄 수 있다
③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다 ④ 사회참여활동에 대한 기대가 있다
⑤ 성공적인 노후에 대한 기대가 있다

8-2. 현재 프로그램 내용에 대한 만족도가 낮다면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프로그램의 다양성 부족 ② 시설의 불편함 ③ 수강료의 부담
④ 교통의 불편함 ⑤ 사회참여활동에 대한 기대가 없음

9. 앞으로 어느 분야의 강의를 더 듣기를 원하십니까?

- ① 음악, 미술 등 예술교육
② 연극, 원예치료 등 정서교육
③ 한글, 외국어 등 어학교육
④ 건강에 중점을 둔 운동교육

10. 교육프로그램 운영기관에 바라는 점을 하나만 √표해 주십시오.

- ① 다양한 프로그램 수 ②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 ③ 교육비 인하
④ 강사의 전문화 ⑤ 사회참여를 위한 지원과 자리 마련

참여 활동

11. 교육프로그램이 나의 사회참여활동에 도움이 되는가?

- ① 매우 불만족 ② 조금 불만족 ③ 보통 ④ 만족 ⑤ 매우 만족

12. 앞으로 사회활동에 참여하고 싶은 분야는 어떤 것입니까?

- ① 교육형 - 배운 내용을 활용한 다른 사람을 교육
② 봉사형 - 주변에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분들께 자원봉사
③ 재능기부형 -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재능을 기부
④ 직업을 구함 - 환경미화, 경비원, 육아, 식당 등..
⑤ 기타 ()

13. 본인이 평소에 가지고 있는 사회참여활동에 대한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 ① 가능하다면 적극적으로 사회참여활동을 하고 싶다.
② 사회참여활동을 통해 많은 사람들과 교류할 수 있어서 사회참여활동은 꼭 필요하다.
③ 사회참여활동은 삶의 활력소가 되어준다.
④ 좀 더 다양한 사회참여활동이 생겼으면 좋겠다.

14. 다음 중 어르신들의 사회참여활동을 위한 기회증진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 ① 정부의 재정적 지원
② 어르신들의 인식 변화
③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④ 전문적인 교육
⑤ 전문 강사의 강의

15. 사회참여에 대한 어르신들의 생각을 묻는 질문입니다. 각각의 질문에 √해주시길 바랍니다.

번호	문항	전혀 아니 다	거 의 아 니 다	가 끔 그 렇 다	자 주 그 렇 다	항 상 그 렇 다
1	나는 내가 원할 때 참여할 수 있는 곳이 있다.					
2	나는 그곳에 최소한 일주일에 세 번 이상 참여한다.					
3	나는 가능하다면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싶다.					
4	나는 정당이나 사회운동과 같은 정치활동을 하고 있다.					
5	나는 지역사회 및 복지관에서 하는 교육에 참여하고 있다.					
6	나는 사회참여를 위해 시간과 돈을 투자한다.					
7	나는 집에 있는 것보다 밖에 나가 활동하는 것이 더 즐겁다.					
8	나는 사회활동을 하지 않으면 시간 낭비를 하는 것처럼 느껴진다.					
9	사회참여를 통해 알게 된 사람들은 나의 남은 인생에 도움을 준다.					
10	사회참여를 통해 많은 사람들을 알게 되었다.					
11	나에게 사회참여는 인생의 활력소가 되어 삶의 의욕을 준다.					
12	사회참여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유지시켜 준다.					
13	사회참여를 통하여 내 생활이 즐거워졌다.					
14	나는 밖으로 나갈 생각만 해도 기분이 즐거워진다.					
15	사회참여를 통해 가족과의 관계나 외로움이 많이 줄어들었다.					
16	사회활동을 하고 나면 하루를 보람되게 보낸 것 같다.					